

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I

- 문예작품을 통해 본 친일협력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I

초판 1쇄 발행 2009년 10월 30일

발행인 ||成大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VI

- 문예작품을 통해 본 친일협력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간사

이제 마침내 우리 위원회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4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제1기는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 제2기는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 제3기는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 입니다.

그러나 8·15해방 후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제3기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위원회 전체 활동을 수록할 종합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재작년에 제1기와 제2기 조사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모두 일곱 권의 사료집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3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들을 선별하여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은 제8권에서 제16권까지 총 9권이며, 제8권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전시총동원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총독의 훈시와 법령을 비롯하여 조선인 노동력 동원과 병력동원 관계 자료와 친일언론의 전쟁지원 논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9권에는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 조선인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등 친일단체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10권에는 일제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조선인의 글을, 제11권에는 1937년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해외에서의 친일협력 자료를, 제12권에는 일제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한국인(조선인)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 제13권에는 유교계의 친일협력 글과

친일 한시를 모으고, 지금껏 번역되지 못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학원, 조선유도연합회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4권에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의 주제로 기독교·천주교·불교·천도교의 친일관련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15권에는 문화예술계의 식민화 정책과 관련 조직들의 자료를 묶었습니다. 끝으로 제16권에는 조선인이 친일협력을 목적으로 쓴 시와 소설, 희곡과 시나리오, 악보와 가사, 미술작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용제의 친일 시집 3권 『아세아시집』, 『서사시어동정(敘事詩御東征)』, 『보도시첩』은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써서 단행본 시집으로 묶어낸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료집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발간하는 마지막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제3기에 조사 관련 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1차 사료집(2007년)과 2차 사료집(2008년)에 신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자료로 활용했던 조선인 훈포상 자료, 종교관련 자료, 문학예술관련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간한 사료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편찬하는 9권의 사료집뿐만 아니라 이미 간행한 7권의 사료집 내용도 함께 디지털화하여 CD에 담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시민사회와 학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사료집을 연구와 교육에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과거사 가운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간된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지나사변, 대동아전쟁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필자명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 왼쪽에 표기하고 ‘,(콤마)’로 연결했다.
단행본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경우, 『 』로 표시하고 연도를 병기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차례

* 발간사	5
* 해제 : 총동원체제하의 한국문예 -상황추수론과 자기설득의 논리 혹은 협력적 포오즈의 세계	13

1. 시

1. 김기진	29
1) 아세아의 피(상, 하) 29	
2) 신 세계사의 첫 장 33	
3) 의기충천 34	
2. 김동환	35
1) 일천병사의 숲(森) 35	
3. 김억	36
1) 뚜들겨라, 부쉬라, 정의의 사(師)여! 36	
4. 김용제	38
1) 『아세아시집』(1942) 38	
2) 『서사시어동정(敘事詩御東征)』(1943) 107	
3) 『보도시첩(報道試帖)』(1944) 134	
4) 학도동원 174	
5) 나는 백 퍼센트 고향 쌀 맛을 알고 싶다! 176	
6)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78	
7) 12월 8일 179	
8) 일본의 아침 180	
9) 갑종(甲種) 181	
10) 용모 181	
11) 농성(籠城) 182	
5. 김종한	184

1) 대기(待機)	184
2) 오늘은 육군기념일	185
3) 모자	185
6. 노천명	186
1) 진혼가	186
2) 흰 비둘기를 날려라	187
3) 출정하는 동생에게	188
4) 군신송(軍神頌)	190
5) 신익(神翼)	191
6) 학병	192
7) 창공에 빛나는	193
7. 서정주	193
1) 송정오장(松井伍長) 송가	193
8. 윤두현	195
1) 전승의 세모(歲暮)	195
9. 이찬	196
1) 송(送) 출진학도	196
10. 조우식	197
1) 가족송가	197
2) 고향에서	198
3) 동방의 신들	199
4) 바다의 찬가 - 반도의 소년이어! 바다로 부르심을 받으라	201
5) 봄과 함께 - 너는 가고	202
6) 비약에 대하여 - 반도의 소년들은 단련한다	203
7) 신주풍(神州風)	204
8) 싸우는 봄에 종은 울렸노라	205
9) 싸워 죽어라 - 징병령 선포일에	207
10) 아가(雅歌) - 전선에 보낸다	209
11) 학병 출정하다	211
11. 주영섭	212
1) 태평양교향시	212
2) 남양송가	214

3) 고무의 노래 216

4) 비행시 217

12. 주요한 218

1) 싱가포르 함락가 218

2) 『손에 손을』(1943) 219

3) 성전찬가 240

4) 아침햇발 - 해군지원병제 실시 발표된 날에 242

5) 12월 8일의 다짐 243

6) 파갑폭뢰(破甲爆雷) - 박촌(朴村) 상등병에게 드림 243

II. 소설

1. 김문집 247

1) 검게 물든 혈서(1939) 247

2. 김성민 251

1) 『녹기연맹』(1940) 251

3. 이무영 394

1) 역전(驛前, 1943) 394

2) 『청기와집』(1943) 395

3) 「정열의 서(書)」(1944) 552

4. 이석훈 573

1) 동(東)으로의 여행(1942) 573

2) 어머니의 고백(1943) 579

5. 정비석 579

1) 어머니의 말씀(1943) 579

6. 정인택 580

1) 아름다운 이야기(1944) 580

2) 각서(覺書, 1944) 584

3) 갑종합격(甲種合格, 1944) 598

4) 불초(不肖)의 자식들(1943) 601

7. 조용만 601

1) 고향(1942) 601

2) 모리(森) 군 부부와 나와(1942) 610

III. 희곡 · 시나리오

1. 박영희, 지원병(1940)	625
2. 주영섭, 흥부전(1942)	654
3. 이찬, 애선(愛線)을 넘어서(1945)	670
4. 북진대(北進隊, 극단 현대극장 공연팸플릿)	680

IV. 악보와 가사

1. 『방송지우』	693
1) 야생초 꽃 693	
2) 애국가요 -다케야마(武山) 대위를 본받자 695	
3) 반도학병의 노래 696	
4) 방송애국가요 -2계급 진급 4용사의 노래 697	
5) 과자와 여학생 698	
6) 바다 698	
7) 얼지 말아라 -출정병사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노래하다 699	
8) 배 700	
9) 조국에 나무를 701	
10) 벚꽃 자장가 702	
2. 『매일신보』	702
1) 이겼다 일본 702	
2) 1억의 결의 704	
3) 어머니의 기원 705	
4) 우리는 제국군인 705	
3. 『오케레코드』	706
1) 지원병의 어머니 706	
2) 그대와 나 707	
3) 강남의 나팔수 707	
4) 벽오동 708	
5) 진두의 남편 709	
6) 만주신랑 709	

7) 아들의 혈서	710
8) 병원선(病院船)	710
9) 충후의 자장가	711
10) 즐거운 상처	712
11) 고성(古城)의 달	712
12) 이 몸이 죽고 죽어	713
13) 남쪽의 달밤	714
14) 위문편지	714
15) 마지막 필적	715
16) 낭자(娘子)일기	716
17) 아세아의 합창	716
18) 모자상봉	717
19) 망루의 밤	718
20) 단심옥심(丹心玉心)	718
21) 결사대의 아내	719
22) 옥통소 우는 밤	720
23) 옥토끼 충성	720
24) 산 천리 물 천리	721
25) 아름다운 화원	722
26) 조선해협	722
27) 혈서지원	723
28) 이천 오백만 감격	724
29) 지원병의 집	725
4. 『콜롬비아레코드』	725
1) 참사랑	725
2) 봄날의 화신	726
3) 정의의 행진	726
4) 행복한 이별	727
5) 동아(東亞)의 여명	728
6) 군사우편(일명 '아들의 소원')	728
7) 종군간호부의 노래	729
5. 기타	730
1) 소년초	730
2) 동백꽃 피는 망루	730

V. 미술

1.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매일신보 징병제실시 기념시화)	733
2. 『반도의 빛(半島の光)』 표지화	740
3. 『신시대』 표지화	746
4. 『신시대』 게재 만화	752
1) 노수현, 멩텅구리(연재만화) 752	
(1) 운전수 752	
(2) 알뜰살림 756	
(3) 라디오체조 759	
(4) 하이킹 761	
(5) 폐품회수 764	
2) 현재덕(玄山) 768	
(1) 명랑 애국반(연재만화) 768	
(2) 채권가두유격대 774	
(3) 채권보국대 775	
(4) 채권삼시다, 미·영(米·英)격멸은 국채로 776	
(5) 2인3각 경주 777	
(6) 서로 호소하는 양 두목 778	
(7) 런던의 유행어 -싱가폴 함락은 기정사실이다 779	
3) 현담(玄潭) 780	
(1) 권투시합 780	
(2) □□를 타고 키 큰 자랑을 하던 양인의 꼴 781	
5. 『가정의 벗(家庭の友)』 및 『반도의 빛(半島の光)』 게재 만화	782
1) 김상수 782	
(1) 신체제부대(연재만화) 782	
2) 이주홍 788	
(1) 즐거운 박침지(연재만화) 788	
(2) 명랑한 금산(金山) 일가(연재만화) 797	
(3) 버리지 못할 전통, 버려야할 습속/고쳐야 할 습속, 버리지 말 전통 802	
* 찾아보기	805

해제 :

총동원 체제하의 한국 문예

- 상황 추수론과 자기 설득의 논리 혹은 협력적 포오즈의 세계

심원섭(인하대 동아시아한국학사업단 연구교수)

1. 수록 자료의 범위와 성격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제16권 『문예 작품을 통해 본 친일협력』 편은 친일 시와 소설, 희곡 및 시나리오, 악보와 가사, 미술 분야에 걸쳐 총 251편의 작품을 번역 수록한 자료집이다. 각 장르별로 수록 편수를 밝히면, 김기진 김동환 김억 김용제 김종한 노천명 서정주 윤두현 이찬 조우식 주영섭 주요한의 시 총 47편, 김문집 김성민 이무영 이석훈 정비석 정인택 조용만의 소설 및 콩트 작품 총 14편, 이찬 박영희 주영섭 유치진의 희곡 및 시나리오 총 4편, 조명암 김용제 등의 애국가요 가사 및 악보 총 54편, 김기창 김인승 이상범 등의 신문 삽화 및 정현웅 안석주 등의 잡지 표지화 관련 자료 총 77편, 노수현 이주홍 김상수의 연재만화 총 55편이 수록되어 있다.

친일문학 관련 자료집은, 친일문학에 대한 거론이 금기시되어 왔던 학계의 오랜 역사를 고려한다면 괄목상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 이미 출간되어 있거나 현재에도 출간 작업이 지속 중이다.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기간 자료집들을 시기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김병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 1~2편(실천문학사, 1986)
이경훈 편역,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평민사, 1995)
——,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II(평민사, 1995)
김원모·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동포에 고함」(철학과 현실사, 1997)
정운현 편,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김재용 외 편역, 『식민주의와 협력-일제 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1(역락, 2003),
——,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일제 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2(역락, 2003),
이재명 외 편, 『해방 전(1940~1945) 창작시나리오집』(평민사, 2004)

_____, 『해방 전(1940~1945) 중단막극집』(역락, 2004)
 _____, 『해방 전(1940~1945) 일문희곡집』(역락, 2004)
 _____, 『해방 전(1940~1945) 상영 시나리오집』(역락, 2004)
 _____, 『해방 전(1940~1945) 공연 희곡집』(역락, 2004)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역락, 2007)
 이정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역락, 2007)
 최삼룡 편, 『재만조선인 친일문학작품집』(보고사, 2008)
 이시다 고조 편, 『신반도문학선집』 1~2집(제이앤씨, 2008)
 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 편, 『반도작가단편집』(제이앤씨, 2008)

이상의 출판 현실을 검토해 보면, 친일문학 관련 자료집이, 한국 사회구조의 내적 변화를 목표로 한 사회 운동적 차원을 벗어나, 연구와 개방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은 물론, 자료집의 출간시에도 학술적 객관성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출간을 요구하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자료집 출간사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이번 자료집은 기간 자료집들이 갖고 있었던 일부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상당 정도 행해진 위에서 편집 작업을 진행한 흔적이 여러 면에서 발견된다. 첫째, 시와 소설, 시나리오의 경우 기존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들 중심으로 편집된 점, 두 번째, 기간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 중 원전(주로 매일신보)을 직접 참조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들을 충실하게 수정한 자료들을 재수록한 점, 세 번째 체계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는 악보 및 시나리오, 만화, 미술작품 등을 대규모로 수록한 점 등이 그것이다.¹⁾ 이 자료집이 부디 친일 문예 연구사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친일시의 내적 논리와 그 유형들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들은 김기진 김동환 김억 김용제 김중환 노천명 서정주 윤두현 이찬 조우식 주영섭 주요한 총 12명이다. 서정주의 「송정(松井) 오장 송가」, 노천명의 「군신송」 외 2편, 기타 『매일신보』 수록 작품들은, 원본을 재검토하여 기간 자료집 수록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이나, 다른 작품들은 기간 자료집과의 중복을 피하는 원칙 아래 수록된 것들이다. 특히 김용제의 장편 시집 『서사시어동정(敘事詩御東征)』, 『보도시첩』을 비롯하여, 친일시 다산 작가이면서도 기간 자료집에서 보기 힘들었던 조우식, 윤두현의 작품이 다수 수록된 점은 이 자료집이 갖고 있는 독자적 특징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각 성향별로 묶어서 소개를 하기로 하면, 우선 소개하고 싶은 것이 김기진 김동환 김용제 이찬 주영섭 군(群)이다. 이들은 1920년대의 신경향파 문학 내지 프로문

1) 『매일신보』 수록 자료를 재수록한 기간 자료집 속에는, 축쇄판 내용을 저본으로 한 결과로 보이는 오독 내용들이 있다. 서정주의 「마쓰이 오장」 중의 ‘야스쿠니타이(靖國隊)’를 ‘귀국대(歸國隊)’로 오독하여 수록한 경우가 대표적 예다. 이를 포함하여, 자료의 수록 원칙 및 기간 자료와 본 자료집 간의 텍스트 비교 문제 등등, 해제문의 집필에 필요한 사전 정보와 관련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4팀 문예파트장 이근제 선생님께서도부터 결정적인 조언 및 자료 제공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학 활동과 전향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1930년대 말기의 '좌익' 활동 혐의로 인한 검거와 전향과 관련이 있는 시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식민지시대 조선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제국주의 투쟁 노선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는 이 시인들의 작품의 대부분은 물론 프로문학의 대규모 전향기의 결과물들이다. 각각의 전향 유형이나 동기에 관한 논의를 차치하고 보면, 이들은 모두 1937년 내지 1938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친일 문학 활동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 작품들의 소재를 보면, '태평양전쟁' 예찬과 '대동아공영권 사상' 홍보(김기진, 김용제, 주영섭), '육군지원병제' 홍보(김동환, 김용제), '학도병 출진' 권유(이찬, 김용제), '일본의 건국사화와 창업' 예찬(김용제), '보도연습' 홍보, '전장' 보도(김용제) 등이 확인된다. 작품의 형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은 대개 자신의 과거 작품 활동의 수준과는 결별한 '구호시'로서의 작품 형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물론 작품 수준의 현격한 저하 내지 시정신의 상실을 의미하는 이 '천편일률성'이 의미하는 바를 개인별로 진단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활동 욕구의 지속을 위한 기회주의적 시국 편승, 혹은 시국에 의한 내적 세계관의 변모, 혹은 시국적 포즈를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잠정적 보신을 꾀하는 위장 전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친일문인 중 1, 2위의 작품 수를 자랑하는 김용제는 이 중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다. 그는 일본에서 4차례에 걸친 영어 생활을 거치는 등 '용병투사'로서 일본 프로문학 시단에서 대활약을 벌인 경력이 있다. 조선으로 추방된 후에는 약 1년여의 전향기(1938)를 거친 후부터 '성전(聖戰)투사'로 변신하는데, 이 시기의 활약상은 1943년 그가 출간한 일어서집 『아세아시집』(1942)으로 '국어문예총독상'(1943)을, 경성대화숙(京城大和塾)으로부터 '모범사상전사(模範思想戰士) 표창'을 받는 데에서 절정을 향하게 된다.²⁾

그는 자신의 전향과 관련하여, 과거의 생애는 '슬픈 사상'의 시대였으나 그것들을 "물결에 실려 보냈"고 다시는 그것을 "헤아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³⁾ 전향기 이후의 그의 시 속에서 내적 고뇌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전부다. 이후 그가 쓴 작품들은, '성전'에 임하는 이들의 단순명료한 생활세계와 밝고 긍정적인 생활 정서, 단순 반복되는 시국 구호들로 일관되어 있다. '성전시(聖戰詩)' 속에서 '진실성'을 찾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긴 하지만, 이 구호적 시편들은, 시인이 작품 속에 시인으로서의 혼을 불어넣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친일문학활동이, 당시 본인이 펴고 있었던 '동아연맹'의 활동을 위장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발언을 그가 남긴 적이 있는 것과도 관련지어 보면, 그의 '성전시'들은 과장적이고 '열광적'인 제스처를 써가면서 친일문학 진영의 선두에 적극적으로 섰던 이광수의 그것과 모종의 유사성을 점쳐 볼 수 있는 데가 없지 않다. 이 면에서는 1937년 홍사단사건 시 전향한 후 열렬 친일 문인으로 활동한 민족주의 문학 진영 출신의 주요한, 그리고 김억의 '저급한 친일시'들도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는 면모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2) 이상을 포함 김용제의 생애에 관한 상세사항은 大村益夫, 『愛する大陸よ一詩人金龍濟研究』(大和書房, 1992) 참조.

3) 김용제, 「序詩」, 『亞細亞詩集』(大東文化社, 1942), 3쪽.

최근 문학 활동의 전모가 공개된 김종한⁴⁾도 이 시기 시인들 중 극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이광수나 김소운, 김용제 등과 더불어 발군의 일본어 능력을 일문시집 『어머니의 노래』(1943)와 『설백집(雪白集)』(1943)을 통해 보여주었음은 물론, 최재서와 더불어 친일문학 이론가로서 대활약을 벌였던 인물이다. 다른 친일 시인들이 ‘대세’에 굴복하는 ‘수동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한다면, 김종한의 경우는 ‘신지방주의론’을 주장하면서 ‘친일’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스타일로 행해나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경의 문학도 조선문학과 동등한 지역 문학에 불과하다는 점, 일본 문학 역시도 조선문학의 참여에 따라 그 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점, 즉 일본문학의 지도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선문학이 민족문학적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그의 ‘신지방주의’ 논리는 당시 시국 운동의 일선에 서 있었던 일본 문인들 사이에서 불온한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

그는 원래 토속적 서정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시를 창작해 온 시인이며, 『설백집(雪白集)』을 통해 ‘조선적’인 세계만을 집중적으로 일본에 소개한 바 있기도 하다.⁵⁾ 이런 점은 그의 ‘신지방주의론’이 급조 논리가 아니라, 김종한 자신의 문학적 체질과 시관 속에서 나온 것이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김종한의 비극 역시도, 신체제기의 한가운데에서 문인으로서 활약하기 위해 ‘영혼을 한번 팔아버린’ 그 점에 있을 터이나, 그가 친일 행적 가운데에서도 일정하게 민족문학적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점은 당대 친일문학 현상이 보여주는 특수성의 하나로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삼고 싶은 시인이, 해방 후 한국현대시사를 떠받쳐 온 거인 중의 하나인 서정주다. 그의 「항공일에」를 비롯한 「송정 오장 송가」 등을 보면, 김용제처럼 시국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녀온 1급 시인으로서의 재능을 ‘성실히’ 활용한 시, 즉 상당한 시적 형상성이 뒷받침된 세계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해방 후 ‘살기 위해서 친일했’으며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왔다는 서민적 고백을 여러 번 남겼지만, 해방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권력을 향해 적극적 협력을 거듭해 온 생의 이력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친일’은 한시적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와 한국 사회의 서민적 삶의 방식을 통어하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노출된 한 형태였다고 보는 시각도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⁶⁾

토속적 삶의 애환과 나르시시즘적인 애련의 세계를 그려오던 노천명의 작품들도 주목할 만하다. 그녀의 작품들은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시국에 임하는 자세와 전의를 북돋우는 총후 활동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남성적 논리가 지배하는 총동원 체제 문학에 여성성의 기반을 구축한 시인이라고 규정이 가능할 것이다. 원래 그녀는 거대 규모의 역사적 변동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상 유형을 지닌 시인이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 연속된 삶의 굴곡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서정주의 그것과 유사한 친일 스타일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짐쳐 볼 수 있다.

4) 藤石貴代 大村益夫, 심원섭, 布袋敏博 공편, 『金鍾漢全集』(綠陰書房, 2005).

5) 김종한은 도일 전 신민요 시인으로 활약하면서 전통 여인의 삶의 애환과 토속 문화를 노래한 작품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활약의 구체상은 大村益夫, 「金鍾漢について」(『旗田巍 先生朝鮮歴史論集』 下, 1979.3), 심원섭, 「金鍾漢의 초기 문학수업 시대에 대하여」(『한국문학논총』 46집, 2007.8) 참조.

6) 이상 김용제, 서정주, 김종한의 친일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식민지 시대 일본어 시의 역사, 사상적 계보에 대해서는 심원섭, 「조선인이 쓴 일본어 시」, 『일본 유학생 문인들의 대정·소화 체험』(소명, 2009)의 3장 참조.

본 자료집에 다수 작품이 공개되게 된 윤두현과 조우식도 주목 가능한 인물들이다. 윤두현은 1942년 친일시 「전승의 세모」 및 평론 「문학과 전통」으로 등단을 했으며, 조우식은 일본 유학기 중 모더니즘 미술운동에 몸을 담았다가 1941~1942년경부터 다량의 친일미술론 및 시 작품을 발표한 경력의 소유자다. 각각 월북 후 숙청, 해방기 이후 행적불명된 불행한 경력을 안고 있기도 한 이들은 전향과정이 없이 문단 활동의 첫걸음을 친일문예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신세대’ 친일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들이다. 두 시인 중 작품의 수준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시인은 조우식이다. 1930년대 시단의 핵심 있는 인물들인 이용악과 백석, 오장환의 시법을 계승한 위에서 형태나 이미지 면에서 빼어난 시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친일시사 속에서 시적 형상의 우수성만을 추려서 본다면, 1급 친일시인이라 불러주기에 손색이 없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향이라는 고뇌의 과정을 거칠 여유도 없이 시국이 요구하는 세계관 속에 영혼을 빼앗겨 버린 불행한 문학 세대의 파탄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친일 소설의 내적 논리의 다양성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친일소설 작품들은 김문집 김성민 이무영 이석훈 정비석 정인택 조용만의 장단편 및 콩트 총 14편이다. 기간자료집과의 중복 수록을 회피했기 때문에, 지명도가 높은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없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작품 숫자로 보았을 때 식민지 시대 친일소설사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석훈 정인택 이무영이⁷⁾ 변함없이 수록된 점, 그리고 장편이기 때문에 기간 자료집 속에 수록되기 어려웠던 김성민의 『녹기연맹』, 이무영의 『청기와집』, 그 외 여러 면에서 주목되는 점들이 있는 이무영의 「정열의 서」, 정인택의 「각서」, 조용만의 「고향」 등이 수록되어 있는 점은 이 자료집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일성’의 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자료집에 수록된 소설 작품 중에서 가장 직설적인 유형의 것이 김문집의 「검게 물든 혈서」라 해도 될 것 같다. 1938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인 친일 활동의 길을 택하였으며 조선문인협회 간사로 활약한 그의 경력도 더불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처형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둔 아들의 독백체로 기술된 작품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국체로부터 신민에게 내려오는 무한한 사랑’을 배반한 불충(不忠) 행위라고 한다. 그리하여 자신은 지원병 심사에서 불합격했으나, 심사 책임자에게 혈서까지 쓰면서까지 선처를 호소한다. 이렇게 아버지의 죄를 대속하고 시국에 봉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국체론’을 조선인 개인의 심정 차원에 근접시켜 다루면서 그것을 조선인의 내면에 호소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근대 일본의 ‘국체’론이란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은 지식인들의 저항과 희생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가다가, 총동원체제기에 이르러 초월적 법리로서 군림하였던 공포적인 정교(政敎) 원리 중의 하나다. 근대 일본의 대국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방편에 불과했던 그 반동적 교리의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문집은 친일 논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7) 호테이 도시히로, 「이무영 ‘청기와집’에 대해서(해설)」, 시라카와 유타카 감수, 『일본식민지문학 정선집(조선편) 5』(유마니 서방, 2000.9), 3쪽.

이념인 ‘국체’ 논리를 전파하는 이데올로그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확정시켰던 것이다.

평단에서 자기과시적인 돌출 행동을 일삼았던 김문집의 개인적 특성도 이러한 친일 스타일 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시기 김문집의 평론 「조선민족의 발전적 해소의 길」의 일부를 보아두는 것도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이 미약한 대로나마 한번 자립해 본다는 것은……한강 보트 타고 태평양 건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녀몽동(幼女蒙童)의 상식이다. 자립 여부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제야 우리에게 남은 유일의 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지인과 동족이 되어서 일체의 의무와 권리를 동일히 향수한다는 황국신민에의 길일 것이다. (중략)

결론부터 한 마디 먼저 내건다면 조선사람이 일본사람 된다는 것은 박가가 최가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나는 박가다, 나는 최가다, 하고 나선 두 친형제가 그들의 공동의 아버지의 성씨인 황가(黃哥)로 귀합한다는 것 외에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우리가 충실한 황국신민이 된다는 것은 여하한 종류의 방법론도 되어서는 안 된다. 폐하에의 충성은 절대 총절적(總絶的)인 조선의 목적론이다. 이 목적론은 만주인이나 중화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조선의 특권이다.⁸⁾

한국문예사에서 거론되는 문예인들의 대규모 친일 활동이란 것은, 그 외적 상황 면에서만 본다면, 중일전쟁 이후 시작된 ‘총동원체제’의 산물이다. 대규모 전쟁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어느 집단 내에서나 발동되는 이 ‘총동원 체제’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문화적 폭력성을 수반한다.⁹⁾ 그리고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가져다 줄 가상적 ‘영광’ 외에, 패배가 야기할 집단 공포가 전쟁 수행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 ‘총동원체제적 전쟁수행의 원리’가, 전쟁의 최당사자인 일본 내에서 근본주의적인 형태로 시작되고 나서, ‘완전히는 신뢰할 수 없는’ 식민지 공간 속에 요구되기 시작할 때, 식민지 지식인들의 집단적 ‘친일’ 문제가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공간이라는 것은, 경제 및 정치역학과 관련된 하부구조적 원리 면에서는 제국의 일원이 되어 있을지라도, 쉽게 변하기 어려운 독특한 상부구조적 원리가 잔존해 있기 마련이다. 소위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한 정치문화 원리, 즉 자력적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성립해가고자 하는 집단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점 역시도 식민지 공간이 피지배 경험을 통해 학습한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식민지 공간에 제국의 모국으로부터의 강압되는 ‘총동원 체제’적 요구가 복합적인 심리적 과제를 문예인 개개인에게 부여할 것임은 당연하다. 한국의 친일 문예 현상 속에서, 총동원체제에의 편입과 관련된 다양한 내적 갈등과 고뇌가 심도있게 드러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8) 김문집, 「조선민족의 발전적 해소론 서설」, 『조광』 1939.9, 256~258쪽.

9) 호쇼 마사오 외, 고재석 역, 『일본현대문학사』(문학과지성사, 1998.3.2), 214쪽.

10) 山室信一, 「國民帝國론의 射程」,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3회 동아시아한국학콜로키엄 강연자료, 2009.2.4 참조.

친일 현상의 발생과 관련된 이러한 전체적 내지 상황적 맥락과 연결지어 볼 때, 위에서 본 김문집의 논리가 과격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의 친일 논리 속에서는, 일본민족에의 전면적인 동화를 요구하는 시국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 한국의 친일 문인들이 흔히 보여주는 당혹감이나 변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논리는, 그 자신은 그 사상적 근원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합방 이전의 일진회 논리는 물론 '대동아전쟁'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종적 연합 논리보다 더 나아가, 조선민족 자체의 자발적 소멸론을 주장하고 있다. 당대 최다량의 친일시를 쓴 김용제나 국민문학 편집자 김종한도 '지방주의론'이라는 논리를 통해 조선민족의 독자적 존재 이유를 고수하려 애쓴 점에 비한다면, 이 극단적인 논리 속에 바로 김문집 개인의 문학 스타일의 불안정성이 역력하게 피로되고 있음은 물론, 한국의 친일문학이 보여준 최대의 정신적 파탄상이 이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민의 장편 『녹기연맹』(1940)은 일본에서 간행된 작품으로서 '지원병 제도'와 '내선결혼', '국방헌금'을 주 소재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시국적 테마가 결말부에 서둘러 등장하면서 인물들이 갑자기 시국형 인물로 급조되어가는, 친일소설들의 공통적 '결합'을 역시 안고 있긴 하지만, 이 작품은 장편소설다운 복합적 구성력과 디테일상의 묘사력이 상당 정도 갖춰져 있는 작품으로서, 친일 소설 중에서는 상당 정도 그 형상적 수준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명수와 명희, 부친의 뜻을 거스르고 사관생도로서의 길을 밟고 있는 명철, 이 세 명의 세도 가문 출신의 조선 남매와, 일본의 실업가 집안의 남매인 야스마사, 야스코 간의 우정 및 애정 관계를 그리면서, 조선인의 일본군 장교로서의 복무, 봉건적 조선 세도가의 시국적 인식의 소유 과정 등을 아울러 그려가고 있다. 물론 주인공들은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예정된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일본인 남성과 동거를 시작한 명희는 그녀에 대한 주변 일본인들의 좋은 평판을 근거로 시부모의 인가를 받아내며, 일본군 장교가 된 명철은 그 위세로 부친과 가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내고, 패전에 대한 공포감을 무기로 완고한 부친을 설득하여 국방헌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말을 짓게 된다.

친일 소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과제는 물론 시국에의 기여이며 독자 대중에의 프로파간다에 있다. 그러나 친일 소설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가는 극복해야 할 '현실'을 안고 있다. 조선 내에 잔존해 있음에 틀림이 없는 반(反) 혹은 반(半)시국적 요소를 어떻게 시국적인 것으로 설득력 있게 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능한 친일소설가와 무능한 친일소설가, 동시에 적극적인 친일소설가, 소극적인 친일소설가의 명암이 갈린다. 이 면에서 김성민의 경우는 독특하다. 그의 경우에는 한일 민족 간의 뿌리 깊은 차별적 문화, 조선 내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 성향 등 반시국적인 요소를 빈번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재로 하여 작중 상황을 전개해 갈 경우에는 디테일 묘사가 매우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구성력을 보여준다. 김성민의 작가적 역량이 잘 발휘되고 있는 국면이 이곳이다. 반면 시국적 목표에 주인공들이 순응을 하게 되는 결말 부분에서는 소설적 설득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방면에 할당된 원고량 자체가 현저하게 적다. 작품의 형상적 수준을 보아서는 이것을 같은 작가가 쓴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시국적 과제'란, 그것이 달성될 때의 휘황한 '과실'은 정책 이데올로그들의 '신념'에 의해 제시되지

만, 현실 속의 작가에게는 실감으로 다가와 있지 않은 ‘미래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종의 추상적 ‘과제’, 즉 작가의 상상력이 실감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세계에 속한다.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는 ‘신념’, 그것의 획득이라는 어법이 당시의 친일문화계 속에서 유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대신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반시국적’ 요소는 작가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자신의 인격 깊숙한 속에서 배제해내기 어려운 일종의 체질적인 세계에 속한다. 이 양면이 작품으로 구상화될 때, 어느 쪽이 설득력 있게 전면에 부상할 것인가, 만약 ‘시국적 과제’에 진실로 깊이 공감한, 당시 용어로 ‘신념’이라는 것을 획득한 ‘선각자’가 아니라면, 그 ‘반시국적 요소’가 작품의 전면에 지배적으로 표출되어 나올 것은 당연하다. ‘시국적 과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김성민의 작품, 그리고 적지 않은 친일 문학 작품 속에서 ‘반시국적 요소’가 오히려 선명하게 돋보이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세 편이 수록되어 있는 이무영의 작품도 그런 의미에서 예외는 아니다. 인물 설정 자체가 대단히 무리인 「역전」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조선인이 쓴 친일소설사 최초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이자 제4회 조선예술상문학상 수상작인 『청기와집』(1943) 그리고 중편 「정열의 서」(1944)이다. 『청기와집』은 ‘청기와집’으로 상징되는 조선의 세도가문 일족이, 주인인 권노인의 죽음과 더불어 구태를 청산하고 ‘갱생’의 길로 들어선다는 내용이며, 「정열의 서」는 실연으로 인한 방황과 금광 탐사로 인생을 탕진한 전직 신문기자가 시국의 대세를 목도하고 생의 건강성을 깨닫고 새 세대에 기대를 걸게 된다는 내용이다. 두 작품 모두 조선의 현실을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의 탈출구 내지 갱생을 위한 비약적인 계기로서 시국적 과제의 실천을 설정하고 있다는 플롯상의 공통점이 있다.

김성민의 『녹기연맹』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청기와집』에서 가장 박진감 있는 소설적 기술이 이뤄지는 부분은, 권노인 생시의 청기와 맥 내부 상황에 대한 묘사 부분, 즉 봉건적인 관습과 복잡한 가족 관계를 지닌 가족 구성원 간의 암투와 불화, 유한·퇴폐적인 생활 관습 등, 이른바 ‘반시국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 부분이다. 반면 시국적 각오가 이뤄지는 계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비약적으로 설정된다. 청기와집의 후계자인 전문학교 교수 수봉은 그가 애호하는 젊은 화가의 전람회 갔다가 금강산을 그린 그림 앞에서 화가의 설명을 듣고 ‘갱생’의 계기를 얻게 된다.

그 산이 명산인 까닭은 미의 상징성에 있지, 곁에 드러난 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 산은 채색의 산이 아닙니다. 위대한 정신을 나무 하나, 돌 하나에까지 새겨 놓았지요. (중략)

나는 이제부터 골짜기 밑의 바위 같은 삶과는 선을 긋겠어. 의연하게 저 금강산의 연봉 같은 삶을 살겠어. 금강산의 연봉은 신념이고 희망이야. (「삽화 하나」에서)¹¹⁾

어떤 ‘신념’을 얻기 위해서는, 반복 축적된 동일 경험과 그에 기반한 개인의 각성, 혹은 개인의 한정된 경험 내용을 압도할 수 있는 초월적 계시 내지 가르침이 필요하다. 작중 주인공 수봉은 후자의 방식을 통해 ‘신념’을 획득한다. 그것은 산수화 속에서 발견한, 개별적 사물들의 이면에 숨어 있는 ‘위

11) 위 인용문은 그림을 설명하는 화가의 발언, 밑 인용문은 수봉의 심경 묘사 부분. 필자의 판단에 따라 원 번역문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음. 앞으로 제시되는 모든 인용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함.

대한 본질'의 계시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다. 이 급조적인 각오가 시국이라는 거대한 폭력의 '계시'에 의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무영이 갖고 있었던 구체적인 시국관은 작중 후반부, 주인공과 청년들이 정치 토론을 벌이는 대목의 기술 속에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솔직히 만주사변 때까지는 저회도 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지나사변이, 유색인종들끼리 패싸움을 시키기 위해 영미가 획책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걸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부터 조선 청년층의 생각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회의파가 완전히 뿌리 뽑혔느냐 하면, 그렇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주사변 후의 회의 기간 이후 새롭게 전개된 국제 정세-중일전쟁이라는 역사적 계기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정치적 기획-가 새로운 각오의 내용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정세의 변화가 인간의 정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사실이나, 이것의 기본적 속성은 정치적 실리에 기반한 차원의 것으로서, 인간 개인의 윤리적·영적 영역을 추동하는 '본질적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무영이 '신념'과 '희망'의 현실적 근거로 제시한 세계는, 정세의 변화, 즉 시국의 요구에 자신의 내적 세계를 끼워 맞추고자 하는 자기 설득 내지 자기 세뇌의 케이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직도 회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위로부터의 논리'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추고자 하는 집단 정신의 비극, 이것이 이무영만의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단편집 『고요한 폭풍』(1943.6)으로 '국어문예연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석훈의 작품은 두 편이 실려 있다. 이중에서 단편 「동으로의 여행」(1942)도 문제시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성지 참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유학생 출신 지식인이 일본의 지방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소회와 유학 당시의 연인이었던 일본 여성과의 재회 사연을 그리며 내선일체예의 의지를 다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이 시국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중요한 소설적 전략은 두 가지다. 첫째는 '동조동근(同祖同根)국인 일본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서정적 공감과 일본의 일상 문화에 대한 동경, 두 번째는 옛 연인과의 재회 모티브를 통한 개인적 상처의 치유이다. 주인공 철은 참배 후 일본의 각 지방을 여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느낀다.

한 점 티도 없이 밝은 처녀의 피부처럼 정결하고 아름다운 국토는, 유구 3천년, 한번도 외침을 받은 적이 없는 숭고한 역사의 상징 같다고 철은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철은 안심하고 자신을 이 나라에 맡길 수 있다고 느꼈다. 아니,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자신을 동포로 품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했다.

(중략)

마침내 이 아름다운 국토가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았다. 더구나 아름다운 루미가 이 푸른 하늘 아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넘쳐흐르는 눈물 속의 행복감에 혈관이 파도를 쳤다.

(중략)

기차 안을 둘러보니 거의가 시골 사람들이었으나, 누가 시킨 것처럼 조용했다. 아들과 조카와

형제를 전선에 보낸 사람들이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표정이어서 소박한 인간미마저 느껴졌다. 오히려 철들 여행단 일원이 마치 전세라도 낸 것처럼 방만하게 행동하는 데다가 가끔 불손하게 보일 정도로 정숙치 못한 점이 눈에 거슬릴 정도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느 지리 공간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주장과 감정적 노출을 삼가는 대인관계법은 일본인을 통어하는 독자적인 문화 심리 체계 중의 하나다. 그러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이 대인관계법은 긍정적으로 비칠 수도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공 철이 일본의 자연과 문화에 부여하는 가치는 단순한 긍정 이상이다. 작가는 하나의 문화적 개성에 불과한 일본의 일상 문화나 대인관계 방법에 특별한 우월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와 다른 규범을 지닌 자국 문화에는 열등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이 식민지의 지배-피지배 정치 역학이 만들어낸 정서적 위력이며, 식민지시대 지식인이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정서적 열등감의 표출 결과임은 물론이다.

여기에 작가는, 불구에 기인하는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일본 여성 루미와, 역시 일본에 대한 열등감과 반감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온 주인공과의 이렇지 못한 애정 사연을 회상시킨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그 상처를 씻고 재회한다는 또 하나의 모티브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주인공이 '상처'를 씻고 순연한 마음으로 루미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계기는, 일본에 영육을 맡기기로 결심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 주인공의 정신적 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시국에의 동참이라는 계기가, 인간 개인이 지녀온 내밀한 정신적 내상까지도 치유해주는 영적 치유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작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시국 소설들의 주된 전략이 상황론적 필연성 내지 논리적 설득에 기대고 있다면, 이석훈의 이 작품은 보다 감염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정서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사료집에는 군대에 다녀온 아들의 늙은 모습을 목격하고 안도를 하게 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정비석의 콩트 「어머니의 말씀」 외에, 친일 소설 다산 작가 중의 하나인 정인택의 작품이 네 편 실려 있다. 일본을 방문한 주인공이 영령의 아내가 되고자 전사한 연인의 집을 찾아온 일본 여성을 목도한 감동을 그린 「아름다운 이야기」(1944), 손자의 지원병 합격을 비는 노인의 기원을 그린 「갑종합격」(1944), 훈련소를 다녀온 자식을 보고 안도감을 얻는 어머니상을 그린 「불초의 자식들」(1943), 입영을 앞둔 지원병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생사를 초월한 정신적 경지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그린 「각서」(1944)가 그것이다. 이 중 「각서」는 무리 내지 작위성이 엿보이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소재의 특성이나 소설적 구성력 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각서」는 외도의 길을 선택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가난을 극복하고 살아온 주인공의 성장기가 전편에 흐르면서, 그 사이사이에 먼저 입대한 매력적인 성격의 일본인 친구에 대한 부러움, 이어지는 자신의 지원병 입대와 어머니의 단호한 정신적 지원, 입대를 앞둔 주인공의 심리적 각오의 과정이 주요 모티브로 제시되고 있다. 시국적인 과제가, 자연스러운 소설적 논리 속에 부드럽게 용해되어 있는 점이 이 작품이 지닌 시국소설로서의 개성이자 '강점'이다.

나의 출세를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아온, 살아갈 작정이었던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일생은 나

를 위한 것이었으며, 나를 목표로 바쳐져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러한 나의 애정을, 나보다도 더 깨끗이 버리고는, 웃는 얼굴로 나를 보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나는 입영 전 3일을 이 '각서'를 쓰는 데 보냈다. (중략) 이제까지 나는 죽는다, 꽃처럼 전사해 보이겠다, 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큰소리를 쳐온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중략) 죽음을 넘어,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극히 평온한 마음으로, 국은에 보답할 때는 지금이야, 라고 나는 영감(靈感)처럼 싹터 오른 결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황군의 일원으로서 출정하는 자식을 위해 혈연적 애정을 포기하는 고통을 '아름답게' 감내하는 어머니의 이미지,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영적 경지로까지 출정의 의미를 내면화시키는 주인공의 자세가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점이다. 원래 고도의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 온 '참선'이라는 수행 문화가 전쟁 수행을 위한 정신적 수양책의 도구로 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시대 시기부터 전쟁과 동거를 해온 일본의 이 참선문화의 조선판을 정인택의 소설 속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정인택의 「각서」는 '정성어린' 친일 소설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마지막 단편들이 조용만의 「고향」(1942)과 「모리군 부부와 나와」(1942)이다. 그의 두 작품은 모두 반시국적 요소가 확실하게 소거된 현실, 즉 시국적 현실이 이미 정착되어 있는 공간을 목가적으로 그리는 데에 특징이 있다. 「모리군 부부와 나와」는 '총후 소설'이다.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인 일본인 친구 모리가 출정하고 난 뒤 홀로 남은 히사코 부인 모자를 주인공과 지인들이 지원을 하려 하나, 부인은 이를 사양하고 양재 학원에 나가는 등 자활 과정을 밟아 나간다. 여기에 모리 군의 전사 통지서가 배달된다. 이 이후의 결말 처리가 조악한 점은 이 작품의 구성상의 최대 결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친일소설 속에 등장하는 일본인의 이미지가 그런 것처럼, 「모리군 부부와 나와」 속에 등장하는 일본인 역시도 이상과 같이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로 설정되어 있다.

「고향」은 '내선결혼' 테마와 더불어 '내선일체'의 이념을 마을 사람들이 일상적 생활 감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긍정해가는 추이를 그린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대학에서의 연구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농장 경영에 나선, 주인공의 처남은 기품과 소박성을 갖춘 일본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하객 중에 이 마을 학교의 전 교장이었던 오키다의 부인이 참석하여 그의 사망 소식 등을 듣게 된다. 오키다 교장은 재직 시부터 학생과 마을 구성원에게 내선일체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호소해 온 인물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늘', 교장이 예언한 시대가 도래해 있음을 실감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사상적 전략은, 반시국적 장애 요소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국에 부응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것, '내선일체의 실현'이 역사의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다. 친일문학으로서 이 작품이 지닌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 작가들 다수가 작중 인물들 통해 내비쳤던 시국에의 회의 내지 고민 과정을 아예 소거하고, 시국의 현실적 당위성을 기정사실화

하여 다루는 그 ‘담대성’, 혹은 그것이 암시하는 조용만 특유의 현실 인식의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위장 전향의 길을 택했던 일부 작가의 예를 제외한다면, 이런 현상이 조용만을 포함한 친일 작가들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 발전에의 ‘신념’의 부재와 그 정신적 위약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4. 희곡 · 시나리오

본 자료집에 수록된 희곡 및 시나리오 작품은 팸플릿을 포함하여 총 4편이다. 이찬 주영섭 박영희 유치진의 작품이 그것인데, 역시 기간 자료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새롭게 발굴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찬은 시와 평론 외에도 희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는데, 여기에는 그의 희곡 「세월」(『조광』 1943.6), 「보내는 사람들」(『신시대』 1944.8), 「이기는 마을」(『춘추』 1944.10)의 뒤를 이어 창작된, 「애선(愛線)을 넘어서」(『조광』 1945.6)가 신발굴 작품으로서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1944년 12월 북조선의 방공초소 근무상황을 진중 일화 형식으로 그린 작품으로서, 병사(病死)를 앞둔 어린 아들 곁을 떠나 초병 업무에 복귀하는 조선인 병사의 일화를 그렸다. 작중 설정에 대단히 무리한 데가 있는 동시에, 1944년 말이라는 시기를 반영하는 전세의 위기감이 암시되고 있는 바가 특징적이다.

주영섭의 「홍부전」(『현대연극』 1942.1)은 판소리 「홍부가」의 권선징악 구조 속에 ‘국민개로정신’의 강조, 즉 ‘근로보국’의 가치를 교묘히 삽입하여 고전 판소리의 ‘현대적 의미’를 살리고, 남방 제비라는 소재 속에 동남아에서의 일본군의 전승 소식을 짜 넣은 작품이다. 무리한 작중 설정의 흔적은 물론, 친일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고전 판소리까지 동원하던 당시 친일 문예계의 고뇌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대본은 당시 일제가 주도한 이동연극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연극은 일제의 연극동원에서 핵심 사업이다. 주영섭의 「홍부전」은 당시 실제로 공연되었던 이동연극 대본으로서 가치가 크다.

안석영이 감독과 각색을 맡았으며, 국책 영화 최다 출연자 중의 한 사람인 문예봉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지원병」(1941)의 원작인 박영희의 「지원병」(1940.6~)도 흥미롭다. 이 작품은 「그대와 나」(1941) 등 당시 지원병 제도 및 징병제와 관련된 선전영화의 제작 열풍 속에서 나온 초기 작품으로 농촌 세태의 일면을 적절히 소개하면서 결론을 국책으로 이끄는 플롯이 적용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지주-마름 관계로 지내온 농촌 가계 간에 세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경제적 갈등, 청년 세대 간의 애정 갈등 등이 전개되다가, 이 갈등들을 해소하는 유력한 방법으로서 지원병 입대 및 총후 지원 활동이 제시된다.

경성대화숙과 매일신보사의 지원하에 1942년 4월 부민관에서 공연된 유치진 작 〈북진대〉는 팸플릿 형태로 발굴된 자료다. 팸플릿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론 및 회고담 등에 주목되는 바가 많다. 이 작품은 당시 작품 중에서는 드물게 역사적 실화 속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으로서, 러일전쟁기인 1904년경 일진회원들이 ‘자원’하여 경의선 철도부설 및 군수품 수송 업무에 혹은 러시아에서의 정보원으로서 활약하던 상황을 소재로 한 것이다. 연출자 주영섭이, 러일전쟁이 “대동아전쟁의 서전”이며 “아

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건설의 제일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일진회의 존재 의의를, 동아시아공영권 및 내선일체 이념 실현의 선구자로 확대 재해석하여 총동원체제의 실현에 동원한 예라 할 수 있다.

5. 악보와 가사

『방송지우』 및 『매일신보』, 오케이레코드, 콜롬비아레코드 수록 군국가요 61편이 수록되어 있다. 『방송지우』와 『매일신보』 수록분은 악보로, 오케이레코드와 콜롬비아레코드 수록분은 음반에서 직접 청취 채록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일부 대표 곡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기는 하지만¹²⁾, 이처럼 수록지별로 대규모 소개가 이뤄진 것은 본 사료집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적으로는, 일반 가요에 대한 전시 통제가 이뤄지면서 군국 가요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었던 1942~1944년대에 작사 작곡된 자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김억, 김용제, 이가실 등의 일부 작품 외에는, 영화 「그대와 나」의 주제가 작사자로 유명한 조명암의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양이나 질 면에서 친일 가요사에서 조명암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실감할 수 있다.

창작 시기와도 관련하여, 대부분의 작품은 전쟁 가요라는 특징이 있다. 동남아 및 중국에서의 일본군의 전승 상황과 진중 생활을 그린 작품, 조선인 전쟁 영웅의 죽음을 찬양한 노래, 대동아공영권의 실현과 황군으로서의 전투 의지 고취를 노래한 작품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는 출전 병사 가족들 및 학생들의 위문 내용을 포함한 총후 활동, 부상자의 전장 복귀 의지, 남양으로 향하는 함선의 모습, 전사자의 편지 사연, 전장에 간 남편을 소재로 한 자장가 등이 있으며, 드물게는 만주 개척 이데올로기를 담은 가요도 눈에 띈다. 전곡이 전투 의지 고취라는 주제로 집중되고 있으나, 일부 작품, 가령 전장에서 추위에 떠는 아들을 걱정하는 「얼지 말아라」나 ‘군신(軍神)’이 되어 야스쿠니 신사에 묻힌 아들과 상봉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모자 상봉」 같은 작품에서는 전투 의지 고취라는 표면적인 주제의 이면에 전쟁으로 인한 혈육의 고통을 아이러니컬하게 드러내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6. 신문 삽화 및 잡지 표지화

본 사료집의 미술 편에는 『매일신보』에 게재되었던 연작 삽화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7편, 『半島の光』 표지화 31편, 『新時代』 표지화 39편이 실려 있다. 이 자료들은 일부분이 언론에 공개 거론된 바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해당 작품들의 시리즈를 모아 수록한 예는 이 사료집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운보 김기창의 작품 1편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제명이 널리 알려진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연작은 “매일신보 징병제 실시 기념 시화”라는 테마 아래 기획된 것이다. 김기진 노천명 김상용 김중환 이하운 등의 동일 제명의 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와 김기창 이상범 김인승 이용우 등 당시 화단

12) 이준희,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유행가, ‘군국가요’ 다시 보기(1~45)」, 『오마이뉴스』 2003.6.9~2004.6.4.

의 거물들이 그린 동일 제명의 삽화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용맹성이나 초월적 능력을 상징하는 호랑이나 용, 혹은 진중의 나팔수, 지원병 송영식 등이 수묵화 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정현웅의 컬러 작품 3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半島之光』 표지화 시리즈는 대부분이 농촌의 근로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근로보국 및 생산증대 등 총후노동을 테마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조선인 지원병, 일본군의 전승 상황 등이 일부 테마로 채택되어 있다. 1943년이라는 시기적 특색을 고려할 때 작품 속의 조선인 대부분이 한복을 입고 있는 점, 여성 인물들의 경우 건장미를 강조한 일본 미인형의 인물들로 통일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현웅, 안석주 등이 참여한 『新時代』의 컬러 표지화는 총 39편이 수록되어 있다. 각 호의 특집 내용에 맞춰 표지화가 그려졌는데, 가령 “입영을 앞둔 지원병 좌담회 특집”호(1941년 2월호, 정현웅 화)에는 일장기 앞에 서 있는 다부진 체격의 조선인 지원병의 모습이 “전시 증미계획과 농민”, “증미계획과 농민의 각오”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1941년 4월호(안석주 화)에는 밀레의 「만중」을 조선인 농민 부부로 패러디한 작품이 실려 있다.

7. 만화

만화는 당시의 대중종합지들이었던 『新時代』와 『家庭の友』, 『半島之光』에 수록되었던 자료 총 48편이 수록되어 있다. 『新時代』 편에는 당대 최고 인기의 오락만화가였던 노수현의 중편만화 「명탕구리」 연작이 총 5편, 현덕의 동생인 현재덕(현산)의 「명랑애국반」 연작 7편, 「채권가두유격대」 기타 6편이 실려 있으며, 『家庭の友』와 『半島之光』 편에는 김상수의 「신체제부대」 10편, 이주홍의 연재만화 「즐거운 박침지」 10편, 「즐거운 가네야마 일가(一家)」 10편이 실려 있다.

전체 작품 내용의 주조는, 일상 서민 문화를 전시기 체제에 맞게 재조직하기 위해 당국에서 제시한 새로운 생활기준들을 서민들이 “즐겁게” 내면화해 간다는 내용이다. 가령 현재덕의 「명랑애국반」은 조선 전국에 걸쳐 부락 단위의 말단까지 조직되어 있었던 ‘애국반’ 활동을 테마로 한 것이었다. 나머지 작품들의 테마는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전시체제에 걸맞는 의식주 생활의 개선, 신체 단련, 근검절약적인 소비 패턴의 정착, 한민족 고유문화의 개선 방안,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적 서구 문화의 배제, 증산 근로와 전시 물자의 조달, 일본적 생활원리의 내면화 등에 달한다. ‘비상시국민생활개선기준’(국민정신총동원연맹, 1938)에서 제기된 생활 개조운동의 세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¹³⁾ 의식주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차원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책정된 생활 규범들을 일상 서민 문화 속에 주입하는 선동대적 역할을 당시의 만화가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당시 친일 문예 장르 중에서는, 일상 문화에 대한 시국의 통제 상황을 가장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13) 이종민, 「도시의 일상을 통해 본 주민동원과 생활 문제」,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혜안, 2004), 430쪽 참조.

I. 시

1. 김기진

1) 아세아의 피(상, 하)

아세아의 피 (상)

1.

오오 이날!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빛날

1941년 12월 8일

★

“제국(帝國)은 오늘 새벽에

서태평양 바다 위에서

미, 영 두 나라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아침의 라디오가 이 뉴스를 전할 때

진정 그대여, 혈관이 터질 듯 전신이 긴장하지 않던가?

★

길거리에서도, 전차 가운데서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마주보면서—

“해냈구나! 기어코!”

“마닐라, 홍콩, 싱가포르, 호놀룰루까지!”

“아! 시원하다! 체증이 떨어지누나!”

“인제 안심이다 가슴이 후련하다!”

호외를 들고서 이같이 주고받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빛!

오오 드디어 동양의 하늘에 검은 구름 걷히어졌네

★

마침내 “선전포고”다!

미, 영의 두상(頭上)에 폭탄의 비를 퍼부어라!

얼마나 오래 전일본국민이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을까

왼손에 십자가 오른손에는 칼

성서와 아편을 한 몸에 품고서

태평양 동쪽의 언덕 언덕을 구석구석을

기만! 통갈(桐噐)! 회유! 착취! 살육! 강탈!

끝없는 탐욕의 사나운 발톱으로 유린하여 오던

오! 저 악마의 사도를 몰아낼 때가 왔다

★

극동의 해가 찬란한 해가 뚜렷한 일장기가
아침 하늘에 빛난다 이글이글 탄다
황공하옵게도 조서(詔書)가 내렸다! “선전포고”다!
일억의 국민이 한꺼번에 일어섰다 기약(期約)하지 않고 일치해 버렸다

2.

동양인의 백년의 숙적에게
우리의 귀한 생명을 던지고 심판할 날은 드디어 왔다
페리¹⁾의 흑선이 동경만에
검은 그림자를 나타낸 이후로 80년—
일로전쟁 이후로만도 30년의 세월—
더 가까이는 만주지나사변의 10년전부터 오늘날까지
저들에게서 받은 오만, 방자, 무례, 횡포의 가지가지—
참을 수 없는 굴욕을 견디고 은인자중하던
최후의 분통의 포문을 꺼치고서
튀어나가는 탄환은 선혈의 덩어리다!
동양인의 영혼과 영혼이 뭉쳐진 덩어리다!

★

징기스칸의 철갑부대가
유럽의 대륙을 응징케 한 지 몇 세기—
그 후로 동양의 역사에 일찍이 어느 나라가 한번
백인의 나라에 철통같은 호령과 함께
응징의 화살을 쏘아 본 일이 있었던가?

★

이제 아시아 10억의 인민을 대표해서
우리의 절실한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영토와 재산의 강탈을 목적하지 않는
성전(聖戰)의 북은 하늘 높이 울렸다
나가자! 태평양의 금기(錦旗) 날리는 곳으로

1) Matthew Perry, 1794~1858, 미국의 해군 사령관.

아세아의 피 (하)

3.

동양의 맹주 대일본제국—
제국이 가는 곳에 10억의 인민이 따른다
은위(恩威) 함께 미치는 곳마다 신질서가 따른다
만주에서 몽고에서 지나에서 타이에서 인도에서—

★

오오 이리므로 성전이 아닌가
제국이 지나에 향해서 무엇을 요구했던가?
영토냐 아니다 배상금? 아니다 주권의 침해는 더구나 아니다
선린우호 공동방위 경제제휴의 삼원칙은
대동아 공존공영의 자연의 이세(理勢)가 아닌가!
강도질 한 위에 민중의 고혈까지 착취하는
배부른 나라 영, 미를 해대는 것도
독, 이와 한가지로 손을 맞잡고서
세계에 신질서 세우고자 할 뿐!

4.

오오 개전초일에 혁혁한 이 전과!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신명이 돕네
필리핀 하와이를 점령하고
홍콩 싱가포르를 무찔러 버리자
탐욕 횡포한 유니온·잭과
오만 무례한 존 불의 산맥을 따 버리자!

★

그리고 우리들은 일장기를 지키자
밥을 먹을 때 걸음을 걸을 때 일을 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쉬일 때
생각하라! 태평양의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불덩어리가 되어 쌘싸우고 있는 황군용사들!
잊지 말라! 총후의 결속은 대포만 못지않다는 것을!

★

귀를 기울이지 말라 비밀한 이야기에!
입을 벌리지 말라 아는 체 하고서!
물자는 생명같이! 사치는 수치다!

경제와 산업의 질서를 지키고
총을 멘 마음으로 호미와 망치를 들자!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전장이다!

★

아아 2천 3백만이 한 덩어리 되어
일어설 날이 오늘이로구나
모이자 일장기 아래로! 아시아의 뜨거운 피로 한데 뭉치자!

★

그대가 가는 곳에 2천 3백만이 간다
2천 3백만이 가는 곳에 일억의 동포가 있다
일억 국민이 돌진하는 그 뒤에서
그대여 십억의 인민이 따르는 것을 못 보는가—

5.

오오 백 년에 걸친 압제의 역사를 찢어 버리고
동양의 하늘을 덮은 요운(妖雲)을 흩어 버리고
노도를 박차고 창랑을 헤치면서
태평양 동쪽의 언덕 언덕과 구석 구석의
백성들의 환희 감격 열광을 신고서
지금 아시아의 위대한 여명은 오고 있구나!

★

홍콩 마닐라 싱가포르 호놀룰루를 떨어트리고서
워싱턴 런던을 철저히 뚫어치는 날이 목전에 있다
도쿄와 신징과 난징이 한 덩어리 되었거든
비등하는 아시아의 피의 혼을 가지고
세계의 낡은 역사를 뜯어고치고서
새로운 질서를 이 대륙 위에 세워 보자!

★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야 할
오오! 1941년 12월 8일

〈출전 : 金八峰, 亞細亞의 피, 『매일신보』, 1941년 12월 13~16일〉

2) 신 세계사의 첫 장

1.

일역의 일본 국민의 장구한 세월-겨누고 노리던 제일의 목표
가혹한 영국이 전 동아의 혈육을 빨아먹던 거대한 심장
오 '싱가폴'을 드디어 오늘 황군의 손에 거두어버렸다!
공격하였다!
십역의 모든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것이 아니냐
세계의 역사에서 영국의 '싱가폴'을 박탈해 버린 이 시간에
아시아 대지가 충천하도록 만세부르자! (이하 6행 중략)

2.

'바스코 다 가마'의 동항(東航) 이후로
'코란'의 신앙을 가슴에 감춘 채 명맥이 하강한
'사라센' 문화의 주인 '마호메트'의 후예들로부터
석유 면화 고무 향료를 빼앗아가면서
그들을 유럽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영국—
서력 1757년 플라시전쟁²⁾이래
인도를 삼키고 서남아시아로부터 마침내 동아시아에까지
상점과 자본을 충만케 하고서 '동양의 꽃밭'을 짓밟아 온 영국!

오오 4백 년 동안 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여 온
구(舊)세계사의 끝 장은 영원히 덮이어졌다!
동양의 위력, 신세계사의 지도체, 대일본제국의 정의의 칼 아래
'싱가폴'의 □□과 함께 '흥아(興亞)의 아침'을 세계에 고하라!

3.

일본의 심장을 어제까지 겨누고 노리던 귀축!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영국의 무장한 척골!
오오, 저 싱가포르의 시가에서 '기미가요³⁾의 합창이 들리누나
홍콩을 빼앗고 싱가포르마저 떨어뜨렸으니
다음은 포트 다윈⁴⁾이다! 시드니다!

2) Battle of Plassey. 영국 동인도회사군과 벵골 태수 시라지 웃다올라군이 벌인 싸움. 플라시는 캘커타 북서방에 있음.

3) 君が代. 제국주의 일본의 국가.

캘커타다! 봄베이다!
만주와 인도를 아시아를 돌리라!

오오 태양이여! 이상과 정의의 권화(權化)여! 불멸의 생명이여!
세계에 찬란한 황군의 무력과 함께 빛나라! 대동아해(大東亞海)의 파도여!
춤추는 청춘이여! 영원의 정신이여!
영국의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들과 함께 뛰어라!
오, 남방의 새들도 흥아의 아침을 노래하누나

문화의 고향! 민족의 창고!
세력의 발원지! 역사의 지도체!
오오 우리의 아시아를 일역의 두 손으로 다시 세우자!
'싱가폴'의 하늘 높이, 땅속 깊이 일장기를 세우고서
신세계사의 첫 장을 쓰자! 십역의 민족의 피로써 쓰자!

〈출전 : 金八峰, 新世界史의 첫 章, 『매일신보』, 1942년 2월 20일〉

3) 의기충천

자나 깨나 눈 속에 있는 태평양의 지도—
3년 동안 신주⁵⁾를 노리며 가까이 오는 아메리카를
두들겨 부술 때가 어느 때 올까 기다렸더니
오오 이제야 대만 동쪽 바다에 그 '때'는 왔다!
과달카날⁶⁾의 비분에 이어서
아투,⁷⁾ 매킨,⁸⁾ 타라와(Tarawa), 사이판,⁹⁾ 티니안, 대궁도(大宮島)¹⁰⁾
이같이 계속해 산화한 명령들 위패에
전사(戰史)에 드문 오늘의 전과를 고하게 하라

두 눈이 찢어지도록 크게 뜨고서

-
- 4) Port Darwin,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
 - 5) 神州. 일본을 가리킴.
 - 6) Guadalcanal, 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섬.
 - 7) Attu, 북태평양 알류산 열도의 작은 섬. 일본식으로는 '아쓰'
 - 8) Makin, 매킨은 타라와와 함께 남태평양 길버트 제도에 속한 환초.
 - 9) Saipan, 사이판은 티니안, 괌 등과 함께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속한 섬.
 - 10) 오오미야지마. 괌(Guam) 섬.

필살의 어뢰를 가슴에 품은 채 적함을 때리는
우리 용사의 자태 눈앞에 보이네.
일찍이 우리가 바친 낚그릇들이 모조리 어뢰되어
지금 서남(西南)태평양에서 악의 무리를 쳐부수는구나.
일찍이 공장에 들어간 아우가 누이가 정성을 다해서
못 한 개 나사 한 개 소홀히 하지 않은 우리의 비행기가
지금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놓치지 않고 뒤쫓아 가네.
아아 주먹에 땀을 쥐고 이를 갈면서 우리도 따르자.

자나, 깨나, 마음에 또렷한 아시아의 해방—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고 이룰 수 있는가.
때는 왔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때는 왔다!
2천 6백만 모조리 일어나 뜻을 합해서
한 뭉치 일억의 힘을 뿜내자.
잡념을 버리자! 망상을 버리자!
생각을 한 길로—, 온전히 태평양의 위로—
우리의 생각을 온 정신을 이리로 쏘으라.
지금 보인다! 활개를 치며 적을 때리는
우리 동포의 의기충천의 용자가 보인다.

〈출전 : 金八峰, 意氣冲天, 『매일신보』, 1944년 10월 19일〉

2. 김동환

1) 일천병사의 숲(森)

도읍의 동쪽, 양주(楊洲) 숲으로부터
아침이며, 저녁이며, 기쁜 목소리가 있다
젊은 일천의 지원하는 대장부들
입마다 대군의 무궁함을 노래 부른다.

들어라, 당신이 어제는
역새 깊은 두만강 강기슭에서 어망을 떠내고
아니면 남쪽 제주, 목장에서 말을 쫓고

좋지 않은가, 남북의 아이들, 오늘은 같은 지붕 밑에서 꿈을 맺는다.

가을보리 풍성히 열매 맺는 400여 주에서는
백만의 야마토 남자들 이미 전쟁터로 달려갔네
젊은이여 그대도 하루빨리 교련을 마치고
나서서 북을 두들겨라 나아가 빗발 같은 총탄을 잠재워라

아아! 오늘도 들린다 목검(木劍) 소리, 군화가 울리는 소리
사나이다운 저 노랫소리, 동쪽 양주 숲에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고, 대군의 방패가 되기 위하여
젊은 대장부의 명량한 노랫소리 들려온다

— 지원병훈련소에서 —

〈출전 : 白山靑樹, 一千兵士の 森 『三千里』, 1940년 12월, 221~223쪽〉

3. 기억

1) 뚜들겨라, 부숴라, 정의의 사(師)여!

뚜들겨라 부숴라 정의(正義)의 사(師)여
손꼽아 기다린 날 지금 왔나니
저 ‘양키’ 이 ‘작크’를 그저 둘 건인가

★

큰 동아의 거룩한 내일을 위해
깨끗한 희생으로 마음을 닦고
천명(天命)을 고이고이 받든 우리들
다같이 검(劍)을 들라 행군을 하자

★

정의의 큰 깃발이 번득이는 곳에
볼지어다 사악(邪惡)은 아침이슬가
밝은 별에 그대로 스러지고 말아
그림자라 자취가 얼른 만나니

★

저 '양키' 이 '작크'야 말을 들으라
입에 발린 네 인도(人道) 대체(大體) 무어나

★

'아편으로 원기를 몰아 죽이고
돌아서선 좋아라 손뼉을 치며
피를 빨아 네 배를 채우는 거냐

★

사해동포 이 인류 같다면서도
갖은 차별 맘대로 하는 꼴이야
거지라도 백인은 관계치 않고
황색만은 아니라 머리 흔들며
입국조차 제한을 하는 것이냐

★

이 세상 옳은 일은 모두하는 체
'나사렛'의 사랑을 앞세우고서
아름다운 이름의 그늘 속에서
갖은 악덕 맘대로 하는 것이냐

★

뚜들겨라 부쉬라 정의의 사여
저 '양키' 이 '작크'를 그저 둘 건인가

★

심장을 들고 돌며 펄펄 끓는 피
두고두고 몇몇 해 별러왔던고
불뚝불뚝 의분(義憤)에 터지려는 맘
이 이상 참을 길을 하마 있으랴

★

대동아 같은 민족 손을 잡고서
공존공영 큰길을 고이 밟으며
즐거운 꽃동산을 지으려하건
이 악덕아 무어라 이간질이나

★

뚜들겨라 부쉬라 정의의 사여
저 '양키'이 '작크'야 칼을 받으라

★

적악(積惡)이 저 하늘에 가득 찼거니

정의의 칼 그 어이 잠잠할거라
 까불대는 너희들 노란 머리에
 병력인양 내리는 엄숙한 천벌
 생각하면 모두 다 자승자박의
 뉘우친들 이제야 맞을 것이라

★

뚜들겨라 부쉬라 정의의 사여
 아름다운 세계를 들추어놓는
 저 '양키' 이 '작크'를 뚜들겨대라

〈출전 : 金岸曙, 뚜들겨라, 부쉬라, 정의의 師여, 『매일신보』, 1941년 12월 25일〉

4. 김용제

1) 『아세아시집』¹¹⁾(1942)

목차¹²⁾

서시(序詩)	산의 신화(山の神話)
양자강(揚子江)	고향의 구름(故郷の雲)
아세아의 시(亞細亞の詩)	사석(捨石)
전장의 벗에게(戰場の友へ)	해신(海神)
꽃을 제목으로 해서(花に題して)	처녀도(處女島)
종달새(雲雀)	눈물 아름다워라(涙うるはし)
청춘(青春)	휘파람 불면(口笛吹けば)
소녀의 탄식(少女の歎き)	이른 봄 1(早春 1)
승리의 노래(かちどぎ)	이른 봄 2(早春 2)
폭격(爆撃)	젊은 아낙들에게(少婦たちに)
전차(戰車)	개미(蟻)
보초서는 밤(歩哨の夜)	북변의 봄(北邊の春)
말(馬)	송화강변(松花江邊)

11) 『아세아시집』은 1942년 12월 18일 발간된 김용제의 일본어 시집이다. 그가 친일문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대표사례가 된다는 점이 이 시집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 시집은 제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1939년 집〉에 19편, 〈1940년집〉에 5편, 〈1941년집〉에 6편, 〈1942년집〉에 25편, 그리고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

12) 『아세아시집』 가운데 일부 시는 〈김규동·김병길 편, 『친일문학작품선집 2』, 실천문화사, 1986년〉에 기번역되어 출간상태라 제외시켰다. 『아세아시집』의 일부 시는 「동양지광」본을 번역해 실었는데, 「동양지광」본과 시집 본의 내용이나 표현이 일부 차이를 밝히는 바이다.

방귀만큼도 여기지 않는다(尻とも思わぬ) 제비(燕) 반딧불(螢) 약혼자에게(許婚へ) 어머니에게(母へ) 배급쌀(配給米) 전쟁철학(戦争哲学) 슬픔을 넘어서(悲しみを越えて) 국경에서(国境にて) 바람의 말(風の言葉) 고언(苦言) 가을은 좋다(秋は佳し) 동방의 신들(東方の神々) 보리 파종(麦播き) 서리 내린 아침(霜の朝) 애국일(愛國日) 선전의 날에(宣戦の日に) 신년송(新年頌)	남으로 간다(南へ往く) 남으로 북으로(南に北に) 단오의 절구(端午の節句) 명예로운 별들(譽の星々) 기도(祈り, 징병감격 그 2) 학생에게(学生に, 징병감격 그 3) 자애(自愛) 한여름의 시(真夏の詩) 종(鐘) 가을의 속삭임(秋の囁き) 국화의 말(菊の詞) 후기(あとがき)
---	---

양자강(揚子江)

만리의 장성(長城)은
 동양 최대의 건축이지만
 그것은 한 때의 영화(榮華)를 말할 뿐
 오오 양자강이란
 얼마나 거대한佳人(佳人)의 이름인가
 그녀의 가슴의 깊이를 알 수 없고
 그녀의 양손의 넓이를 알 수 없네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 오래됨을 모르고
 그 젊음을 모른 채
 오늘도 유유히 대륙에 맥박이 뛰고 있다

양자강은
 수천 년 지나학(支那學)¹³⁾의 어머니

13) 중국학.

그 문화는 유역의 기름진 들에 현란하게 피어있었다
그곳에서 춘추시대의 태평이 노래되고
통감(通鑑) 열다섯 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수많은 왕조가 흥망하고
수십억의 영웅재자(英雄才子)가 일월(日月)을 다투었다
그 전통의 언저리에서
수십억의 생(生)이 갓난아기를 목욕시키는 물을 길고
수십억의 죽음이 만가(輓歌)¹⁴⁾를 흘러보냈던가
지금 또다시 수억의 민중이
고력(苦力)의 운명에 신음하고 있는가

양자강이여
너의 역사와 젊음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오늘날은 너무나도 무지(無知)하구나
지나(支那)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전 동양의 행복을 위해
너의 무지함이 한심스럽구나

불행한 가인의 운명이여
너는 아직 방랑의 비애를 모르겠는가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양자강이여
너에게는 아직 역사의 기억이 있을 터이다
요순(堯舜)¹⁵⁾의 영광스러운 별빛은
지금도 너의 거울에 아름답게 깃들여 있다

이것은 아직 생생한 추억이다—
유니온 잭의 서방(西方)의 깃발이
너의 처녀성을 범하고
아편전쟁의 마약을 주사 당하고부터
너의 순결한 피는 더럽혀진 것이다

14) 만가 : ① 상여(喪輿)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 ②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

15)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동양의 가인이여 가엾은 옛 이름이여
아편주사에 중독되어
탁해진 너의 피는 더더욱 미쳐갔다
온갖 푸른 눈의 방탕아에게
기만당하고 빼앗기는 것조차 모르고
영토를 내주고 염세(鹽稅)를 하고
철도를 주고 광산을 주고
그리고 입술도 젖가슴도 모두 바쳐버렸다
오오 상처투성이의 양자강이여
너는 얼마나 끔찍한 매춘부인가
너의 운명의 말로를 생각하는 게 좋다
스스로 구미의 식민지가 되려하고 있다
사백여주(四百餘州)를 그들에게 찢기고
사역의 민중을 노예로 팔아넘기려하고 있다

미쳐버린 너에게는
양자강에서 빠져 허우적대는
무수한 생명(生靈)의 눈물의 맛조차 모르는가
지나사변(支那事變)¹⁶⁾의 포성에도 깨지 못할 만큼
취해 문드러진 것인가 귀가 먹어버린 것인가

너의 전통과 자연의 흐름은
서방의 고원(高原)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옛날 그대로의 동방으로 흐르고 있다
그곳에 새로운 아시아 역사의 코스가 있다
너의 영원한 길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지나의 어머니인 양자강이여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지나는 아시아 건설을 외치고 있다
사역의 백성은 그 약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모성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지금이야말로 깨어나 다시 끓어올라라!
지금이야말로 동양의 건설을 외쳐라!

16) 일본에서 중일전쟁을 이르던 말.

전장의 벗에게(戰場の友へ)

전첩(戰捷)¹⁷⁾의 봄 사랑스럽다며
전장의 동무에게 편지를 쓴다
벗의 기쁨 이루어 말할 수 없다

일찌기 동도(東都)¹⁸⁾에서 배울 무렵
자네는 가난하였고
나 또한 넉넉하지 않았으나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쇠처럼 단단하였고
물과 같이 온화하고 부드럽게……

그 성북(城北)의 여섯 장 다타미(畳) 방에
떡 구워먹을 숯불 없는 추운 밤을
이야기로 지새웠던 정월(正月)의 추억이여
하지만 젊은 열정은 불타고
자네는 그림을 사랑하였고
나는 시를 사랑하여
두 사람의 마음은 즐겁고 또한 넉넉했다

그 또한 지금은 젊은 날의 추억이다
자네는 지나(支那)¹⁹⁾에서 싸우는 몸
나는 고향에서 병약한 몸
뉴스 영화의 은막(銀幕)²⁰⁾에
명멸(明滅)하는 병사 속에서
자네의 얼굴을 찾아 마음이 조급해지는
허무한 그리움이여

어느 사이에 사변지도(事變地圖)를 펼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네의 모습을

17) 승전(勝戰).

18) 동도. 동쪽에 있는 수도(도쿄를 이룸).

19) 중국.

20) 영사막. 스크린.

기도하는 심정으로 선명하게 떠올린다
격전이 시작되고
격전이 가라앉는
그날그날의 생활을

전진(戰塵)²¹⁾에 흐릿한 대륙 저편에
붉은 석양이 잠기면
동토(凍土) 무너지는 참호(塹壕)의 벽에
몸을 내던지는 야영(野營)의 밤
피로를 돌봐줄 신이 내려올 것이다
용사의 얼굴에 미소 짓는 별이여
행복한 꿈이여 밤의 정령(精靈)

자네 정 많은 사람이기에
전투 후 사람도 드문
청할 집도 없는 어둠의 별판에
애처로운 걸인의 호궁(胡弓)²²⁾ 소리를
꿈결에 들으며
무고(無辜)²³⁾를 조상(弔喪)하는 눈물도 흘릴 것이다

봄이 아직 열은 전장의 하늘에
강남의 종달새가 날아오르고
고향을 생각하며 울까 울지 않을까
전장의 아이들의 꿈을 뒤흔드는 것은
오늘의 목숨을 일깨워주는
적군도 아군도 아닌 머나먼 포성의 울림

눈 덮인 전선에도
봄은 멀지 않았다

역사와 더불어 밝아오는 동아시아의
아침노을의 징조가 어렴풋이……

21) 전장(戰場)에서 일어나는 먼지.

22) 동양 현악기의 하나. 바이올린과 비슷한 악기로, 네 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총으로 맨 활로 탄다.
≡경궁(京弓)·완금(碗琴). 호금.

23) 무고. 죄가 없음.

사라져가는 별의 꿈의 빛깔(夢色)에
자네는 아득한 것을 그리워하겠지
그 이름조차 없는 별 하나에
자네를 지켜보는 우정의
기도하는 미소를 받으시게

자네는 젊은 화가
지금도 전장의 화가
엄연한 총검(銃劍)의 화필(畫筆)
웅장한 대륙의 화포(畫布)²⁴⁾

아아 감격스럽구나
벽혈(碧血)²⁵⁾의 물감!
거기 아시아의 중원(中原)에
내일의 역사화를 자네는 그린다!

꽃을 제목으로 해서(花に題して)

상해(上海)에서 남경(南京)으로
남경에서 한구(漢口)²⁶⁾로
한구에서 더욱더 깊이 지나(支那)로—

군기(軍旗)는
속연히 열렬히……
연승(連勝)의 바람에 펄럭이고
대륙의 지도에는
무수한
일장기를 세워왔다

오오 만리(萬里)의 정로(征路)
들을 넘어

24) 캔버스.

25) 푸른빛을 띤 진한 피.

26) 한커우. 중국 후베이 성(湖北省) 동쪽, 한수이(漢水) 강과 양쯔 강(揚子江)이 합류하는 북쪽 기슭에 있는 도시. 우창(武昌)·한양과 함께 무한 시(武漢市)를 이루는 무한 삼진(三鎭)의 하나이다.

강을 건너
전장의 뒤에
겨울을 넘어 전진해왔다

백만 전사(戰士)들의 가슴에는
두 번째 봄바람이 솟고
생명의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빛은 동방(東方)으로부터 와서
봄은 널리 천지에 온통 가득하다

파괴된 고성(古城)의 그늘에
이름도 없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다
신록에 눈뜨기 시작하는 숲 그늘에
작은 새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다
오오 아름다운 봄이여
자연의 세계에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봄이 왔다
봄이 왔다
참호의 꽃에 봄이 왔다
나의 코에도 봄이 왔다’
제비꽃 향기를 맡으며
병사는 노래하듯이 말하고 있다

장대(壯大)한 전쟁이 한창인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生)을 믿는
강철의 가슴속에
한 송이의 꽃을 사랑하는
상냥한 마음이 있을 줄이야!

그것은 자연의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마음의 꽃이다
꽃이나 새를 즐기며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그저 감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살벌한
전진(戰塵)을 씻어내는 위안은 좋다

꽃을 제목으로 하여
봄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으리라
시나 노래를 읊는 사람도 있으리라
좋아하는 사람의 편지 속에
참호의 꽃을 살짝 넣는 사람도 있으리라

꽃을 사랑하는 상냥한 마음은
꽃과 같이 피고
꽃과 같이 진다
무사도(武士道)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이 아시아 대륙의
화원(花園)을 어지럽히는
난폭한 자들을 꺾을
정의의 무사의 마음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자연의
꽃을 제목으로 하여
전첩(戰捷)의 봄을 소리 높여 노래하라!
그리고 전사들의 머리위에
마지막 화관(花冠)을 빛나게 하라!

폭격(爆擊)

공병의 재빠른 작업이
순식간에 황야를 고르고
새로운 비행장이 만들어져 나간다

검은 피부가 나타내는
걸음 진 대지 위에는

꽃씨라도 뿌려지면
아름다운 화원이 곧 나타날 것 같다
생생한 흙냄새가
하늘의 용사의 가슴에 배어든다

몇 대의 폭격기에는
휘발유가 채워지고
폭탄이 가득 실렸다
성난 독수리의 은색 날개는 대기하고 있다
가죽 군복에 몸을 가다듬은
젊은 탑승원들은
별써 하늘 위의 공기에 가슴을 뛰게 하면서
출동 신호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프로펠러가 울리며
기체는 새로운 근거지를 미끄러지면서
멋들어지게 육지를 떠나며
자유스러운 하늘의 장도에
폭격기는 용감하게 날아간다
높게 그리하여 멀어지면서
세계는 눈 아래에 펼쳐지며
한 장의 군용지도가
끝없이 이동하고 있다
적과 아군의 전열(戰列)이
개미처럼 분포해서 보이며
참호나 크리크²⁷⁾가
지렁이 같은 선을 불규칙하게 끌고 있다

적의 비행대와 마주치면서
공중전의 불꽃을 튀긴다
그것도 지금은
상해전의 추억이 되고 있다
기상(機上)의 기관총은

27) creek, 중국의 작은 운하(수로).

저공비행할 때
지상의 적을 맹사(猛射)한다
그것만으로는 불만스럽게 잠자코 있다

우리 성난 독수리는
이미 적의 정상(頂上)에 실어 왔었다
고사포의 탄환이
영똥한 하늘을 치는 것은 좋으나
견방진 소총 탄환이
몇 개의 구멍을 날개에 낸 것 같다
기체와 인체에는
완전히 한의 신경으로 긴장한다

폭격의 전투기는 무르익었다!
대담한 저공비행을 감행하여
지상의 정찰을 한다
적의 집중 점을 노려서
폭탄의 비를 쏟는다

투하기(投下機)를 춤추며 나가는 폭탄은
탄약을 싣 굵은 강철의 화살!
가속도의 무게로 작아지며 빠르게 되어
검은 콩알이 지상에 떨어진 순간
커다란 분화산을 뿜어 올린다
엄청난 기세로 명중 파괴하는 폭탄은
성벽을 분쇄하고
포대를 폭파하며
적의 모든 것을 파쇄한다

하나의 폭탄이 폭발하면
몇 천 조각의 새로운 파편이 또한 일을 저지른다
폭연(爆煙)이 올라가며
불길이 퍼져서
모든 것을 태워 없앤다

폭격의 임무를 마치고
유유히 날개를 돌려서 돌아오는 길
육지의 우군들이
거기를 빨리 점령할 것을 빈다

무거운 폭탄을
아낌없이
적에게 모두 주고 왔다
돌아오는 기체는 가볍고 빠르다

전차(戰車)

하늘을 압제(壓制)하는 비행기가
공군의 성난 독수리라면
대지를 석권하는 전차대는
육군의 성난 사자인 것이다

전차가 벗겨 진 철의 불사신의 괴물
차바퀴의 쇠 띠는 무서운 송곳니
지상을 삭이며 맹진하면
향하는 곳은 산이 없고 강도 없으며
적이 없다

강철의 심장이
기관총의 뜨거운 뜻을 꿰뚫어 하면
바위와 같은 이상한 몸집이
땅을 올리면서 나아간다

보라!
초목(草木)을 깔아 눕히며
산을 기어 올라간다
탁류(濁流)를 뚫으면서
크리크를 건너간다
적병(敵兵)을 생매장하고
참호를 짓밟으며 넘어서

철조망이나 바리케이드
무어나 그 발의 티끌
성벽의 철문에 몸으로 부딪혀
우지직 쳐부서고
돌격의 혈로(血路)를 연다

철벽의 대열이
전선을 끊어내는 장관은
해양을 제압하는 함대와 같다
기관총의 맹사를 시작하면
총안(銃眼)의 불이 뜨겁게 화내기 시작한다

아아! 전차의 위대한 힘이여
이 대륙의 전선에
사자와 같이 싸우며
말과 같이 갈아라
동양의 길을 개척하고
내일의 건설의 씨를 뿌린다
트럭의 길을 이끌어라!

보초서는 밤(步哨の夜)

새롭게 갓 점령한지 얼마 안 되는
산 위의 진지에
숨결도 얼어붙는 겨울밤을
보초는 혼자서 묵묵히
전선의 신경을 지키고 있다
바람은 고요하고
이수(易水)는 춥다
지나의 옛날 시인은 노래했으나
지금은 바람도 물도
대지의 죽음과 같이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다

밤은 빠르게 새어가고
근처의 산들은 적막의 한 색
낮은 소나무 그림자만이

군데군데 바위 곁에 꿰뚫고
여기저기 펼쳐 있는 적이 버린 시체를 장사 지내고 있다

귀신이 다가오는 시간의 흐름이
보초의 심장 안과
손목시계의 초침에만 살아 있다

눈앞에 가로 막아 보이는
산맥의 검은 벽이 폐허의 성과 같이
그 등에 기울어진 초승달이
청룡도처럼 날카로워지며
슬픈 듯한 빛을 가냘프게 쏘고 있다

먼 저쪽 하늘에는
밤의 전투를 즐기는 듯
탐조등의 불빛이
하얀 무지개를 이동시키고 있다
소리도 없는 유산탄(榴散彈)이
예쁜 불꽃처럼
수 없이 별 동을 내리게 하고 있다

보초의 눈과 귀는
총구(銃口)처럼
예리하게 팽팽하게 되고 있다
방한외투를 찢는 한기에 견딜 수 없어
가끔 세 걸음을 앞뒤로 가면
조심하는 우리 조용한 구두소리에 접하면
적의 인기척이 아닌가 하고 정신이 나며
총을 꼭 붙잡거나 한다.

산 위의 밤 보초는
다만 혼자 묵묵히
무명의 동상과 같이 우뚝 서고 있다
전우들의 오늘 밤의 조용한 꿈을 빌면서
총구(銃口)처럼 눈을 반짝 뜨며
전선의 신경을 꼭 지키고 있다

말(馬)

사랑하는 말이여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전우여
네가 용감한 것만큼
너의 부드러움은 슬프게
네가 강한 것만큼
너의 푸른 눈은 외롭다

사랑하는 말의 외로운 커다란 눈이여
조용히 깜박이는 눈 뚜껑과
푸르게 빛나는 갈퀴에
하늘의 신비한 색깔을 읽으며
깊은 바다 속의 잔 맛을 맛본다

귀여운 말의 눈은
푸른 고향의 목장의
그리운 풀 향기를 생각하는지
나는 너를 위하여
어떤 풀꽃을 따오면 될 것인가

그러나 용감한 말이여
너의 전공(戰功)에는
신이 훈장을 만들고 있겠지
기병(騎兵)이 살아가는 성채(城砦)
너는 사자처럼 전쟁터를 돌아다닌다
포열(砲列)을 산으로 끌어 올리고
탄약이나 양말(糧秣)을 실어면서 묵묵히 다만 나아간다

쇠 말굽이 다 닳아서
뒤뚱거리는 다리가 돌맹이 길에 피를 흘려도
너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도 모르며
말없이 묵묵히 무거운 짐을 날며 간다

상처 입은 말의 슬픈 울음소리에

저 눈의 외로움의 푸름을 생각한다
자신의 상처를 핏고 있는 말의
무거운 눈 깜박임에
저 눈의 가련한 운명을 생각한다

타다 남은 나무 아래에서
선채로 쉬고 있는 말이여
나의 휘파람소리에
너의 기다란 귀를 기우려
고향생각으로 달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륙의 로맨스를 듣는 것이 좋을거야

포화에 타며
전진(戰塵)에 뒤범벅이 된
너의 자랑스러운 갈퀴여
바람과 빛의 미소가
신의 애무를 붙어 올 것이다

귀여운 말 없는 전우여
너의 콧등을 두들겨 주면서
너의 푸른 머리를 들여다보니
감사의 눈물이 벅차오른다
그리고 너의 깊은 눈 밑바닥에
나는 신성한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신에게 맹서하는 마음의 거울이여!

방귀만큼도 여기지 않는다(尻とも思わぬ)²⁸⁾

격전 후
노련한 병사가
어느 때도 없었던 울상으로
가랑이를 벌려 기어가듯 하며
크리크²⁹⁾의 물속으로 내려간다

28) 방귀만큼도 여기지 않다. 우습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대단치 않게 여기다.

“이상한 곳을 당하면
너희 마누라한테 평생 원망 들을 거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 모두를 웃게 한다

“쓸데없는 참견이군
이 몸이
탄환에 당할 리가 없잖아”
쓴웃음을 지으며 그는 말한다

“탄환에 당하지 않고
똥에 당한 공훈담인가
방금 전 것은 대포소리가 아니라
네 떠들썩한 방귀 소리였구먼”

“전쟁 따위 방귀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배앓이에는 못 당하겠네”

노련한 병사도
역시 멧찍어하며 머리를 긁었다
거기서 또 동정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비(燕)

귀여운 작은 새여
평화와 사랑의 상징처럼
너는 옛날부터 노래해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전부의 가치의 시는 아닐 것이다

그 무서운 총알의 빗속에서도
제비는 예사로운 얼굴로
재잘 재잘 이야기하며
열심히 보금자리를 지키며
적절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것이 용기의 상징이 아닐까
그것은 알미울 만큼의

평화와 사랑의 그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비는 얼마나 싸워 왔던가
그 생활의 용기는
오히려 독수리보다 강하고 아름답다

작은 제비여
네가 생활과 싸우는
그 용기의 아름다움에
나는 갑주(甲冑)의 가슴을
이렇게도 그림계도 맞고 있는 것이다
비둘기 역시
평화와 사랑의 이름에 있어서
제비와 같은 호칭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편지를 전달하는 군무(軍務)에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

제비가 만약에
비둘기처럼 길들여진다면
멋진 용사가 될 것이다
그 날개에는 기적의 신이 타고 있다
어떤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르게 멀리 오랫동안 나를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공상이나—
인간과 제비의
지혜가 더 진보한다면
전서(傳書) 제비라는
새로운 말이 세상에 유행할 것이다

제비의 평화와 사랑에만 감상한다
그러한 시는 한창(閑窓)의佳人(佳人)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제비의 생활전(生活戰)에 찬탄하고
이 작은 용사의 노래를 구가하고 싶은 것이다

3월의 소리를 하늘의 한 모퉁이에 기다리면서

고향땅의 보금자리를 지향하여
멀리 남양군도로부터
만리의 거친 바다를 날아온다
그 용감함을 생각해보라

멀고 먼 바닷길을
창망(滄茫)한 하늘 길을
봄이 되면
제비는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것이다

아아! 몇 십만의 제비 떼들이
바다를 삼키고
하늘을 가리며
검은 구름처럼 날개를 교차하며
상쾌한 뜻이여
먹지 않고 잡자지 않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며
그것은 무서운 공군의 그림인 것이다!

그리하여 불행하게도 태풍을 만난다면
지구 끝으로 놀림을 당하여
힘이 다하고 날개가 꺾어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희생이
대양(大洋)의 티끌로 버림당하고
그 고난의 봉정(鵬程)마저
제비는 넘어서 온 것이다

평화의 봄을 알리는
제비의 기쁜 노래
그것만을 오로지 복창하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은 불친절한 것이다

나는 제비의 의기(意氣)를 느끼며
정말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그 용기를 배우고 싶은 것이다!

반딧불(螢)

달이 없는 여름 밤
조용해서 소리는 없고
전쟁터의 고요함 속에
대륙의 공기는 무덥고
군인들이 벳은 가슴에는
한 점의 바람도 불어오지 않는다

흙냄새 나는 민가의 본부에
지도를 비추어서 작전을 세우는
양초불이 오직 하나
참모들의 날카로운 시선보다도
빛이 얇게 쓸쓸하다

뒹자리를 깔아놓은 좁은 방에서
섞여 자는 군인들은
빈대의 맹습격에
물려서 배를 아프도록 굶으며

나무 아래의 풀밭 언저리에서
노영(露螢)하는 군인들은
모기떼의 흡혈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신경질적으로 계속 치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두세 개의 담뱃불이 깜박이고 있다
잠이 안 오는 채로 잠자며 이야기가
이슬에 젖은 무게 있는 소리로
조심스럽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다

형태만의 헛간 속에
사랑하는 말의
더위를 생각하고 모기를 쫓고 있다
나뭇가지의 부채를 부치는 사람의 마음씨

크리크의 물 위에는
곡식을 몰래 보내는
농사꾼이 젖는 지나 배가 소리도 내지 않고
작은 전구(電球)처럼 크기로 크게 보인다
반딧불의 빛이 엄청나게 푸르게
휙 날아간다
휙 꺼진다.

푸르게 외로운 반딧불의 빛은
태곳적의 유성(流星) 그것처럼
이향(異鄉)의 청산(靑山)에서는 잠들지 못한다
전우의 혼 그것과 같이

잠들지 못하는 여름밤
곰곰 하게
가고 없는 전우를 생각나게 한다
크리크의 반딧불 빛!

약혼자에게(許婚へ)

사랑하는 M자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날인가
다만 나의 곁에는
당신의 손으로 쓴 위문품이 도착해 있다.

우리는 마침
어젯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떤 동료는
새색시와 둘이서 여행한 꿈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나는 남양의 추장이 된 꿈을 한창하고 있는 중
당신으로부터의 선물이 온 것이었다.

동료들은
“추장의 딸은 귀엽겠지
야자 그들의 로맨스인가……”
하고 듣고 있었으나

“그래 남양으로부터의 선물이다, 그 안에는 진주인가 야자열매인가……”
하며 노래하듯 기뻐해주었다.

나는 모두로부터 조금 떨어진 풀밭 위에서
당신 편지를 혼자 읽고 있다
두 번이나 세 번도 읽고 있다
후방의 수비를 굳게
당신이 건장해서 무엇보다 기쁘다.

당신의 펜글씨는 여간 달필이 아니며
그 전보다 훨씬 모가 없어진 것 같다
부드러운 선이 감정처럼 흐르고 있다
신선한 잉크의 향내가 그림구나.

당신에게 환송되어 출정한 추억
그때부터 벌써 2년이 흘렀다
그 세월의 목숨은 빛
이 편지에도
당신의 아름다운 성장이 이야기되고 있다
당신으로부터의 “부적”은
지금도 땀에 젖어서 살갓에 붙이고 있다
또 한번 위로부터 당신의 편지를
살짝 폼어 안고 보거나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비장한 전쟁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M자 미소 지어 달라
여기에는 전쟁다운 스냅이 펼쳐지며
대륙의 아라비안나이트가 많이 있다
고향처럼 새싹이 푸르게 솟아나고
고향에 없는 꽃도 발아래에서 웃고 있다.

봄 끝의 푸른 하늘 저쪽에
2년도 그릴 수 없던 청춘의 옆얼굴이—
그것은 어떤 성화(聖畵)보다도 행복한 인스피레이션
낮 사이의 아욱꽃처럼

황홀하게 졸리는 기분마저 드는 것이다
그렇다 M자
당신이 아직 모를 것 같은
이름도 없는 지나의 꽃을 몰래 보내 줄까.

당신은 국방부인회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들도
마음 든든하게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생화(生花)의 연습도 잊기 쉽고
후방의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꽃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인 것이다.

당신의 선물에 감사를 하자—
우리들은 어깨가 피곤하지 않는 책에 굶주리고 있다
서적과 문화는
전쟁터에서도 물과 같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에도 잡지를 잊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고마운 프레젠티인 것이다.

내가 편지를 읽고 있는 사이에
당신의 잡지는 이미 행방불명이 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여왕과 같은 인기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표지가 벗겨지고
쓰레기가 될 때까지 애독되어 가는 것이다.

이번 표지그림은 멋지게 되어 있다
전쟁화보를 보는 군인들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사진이 아니며
나폴레옹의 명화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에 겸손한 히로이즘이 빛난다.

사랑하는 M자
나는 당신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소학생처럼 연필을 빨며 빨며

당신에게 이 답장을 쓰고 있다.

당신의 아름다운 성장을 푸른 하늘의 가슴에 그리면
내 마음은 무엇인지
신성한 젊음 흥분을 느낀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노라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쓰지 않겠노라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이다.

녹색의 미풍에 흔들이며
밭 아래에서 장난치는 대륙의 꽃을
당신을 위하여 따서 올려 본다
그리하여 조용히 미소지어면서
나는 또 총검 닦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에게(母へ)

어머니
전선에도 대륙적인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벌써 벼 베기가 시작되었겠지요
당신께서 매일 참배하시는
신사의 숲에서도 귀뚜라미가 울겠지요

어머니는 언제나
전쟁터의 제가
류마티스나 풍토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 일러전쟁의 적이라고 했던
그런 군대 병은 없습니다

상륙하고 한 동안은
밤낮의 강행군에
양쪽 발이 물집 투성이로
형질신을 계속 신었습니다
이제는 물집이 쇠가죽이 돼서
말굽보다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영하는 밤 같은 때는 어머니의
그리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전지(戰地)에 얽힌 몸이 되면서부터
당신의 사랑이 깊고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가슴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의 효도는
어머니를 하루도 잊지 않는 것
하찮은 병에 걸려 개죽음하지 않는 것
당신께서 신에게 매일 참배하는
그 마음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
전선에 피는 모성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것이겠지요
불쌍한 피난민은
우리 선무대(宣撫隊)가 돌보고 있으나
당신 나이 또래의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이나 손자를 지키는
눈물겨운 정경(情景)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는
배고픔에 우는 갓난아기를
젖도 침도 말라 버렸음으로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는지
그때 상처 난 피를
갓난아기에게 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먹을 것을 주니까
파란 얼굴을 한 그 엄마는
갓난아기를 꼭 품 안에 껴안음으로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울고 싶을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의 힘을 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저의 뜨거운 마음의 눈은

이 지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나의 넓은 대지가
거기에 살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이
커다란 어머니의 품처럼 생각됩니다
저의 눈앞에는
가을향내가 기분 좋게 바람을 부르고
풍요롭게 영근 보리밭에 황금의 물결을 흘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보리의 바다와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들은 그 속을
몇 날이나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바다와 같은 보리밭을
지나의 백성들은
그 친척과 같은
말 없는 가축과 함께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굵은 손의 따뜻함이
한 알 한 알씩의 보리씨가 뿌려져서
이와 같은 보리밭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은 흙 그 자체처럼
무지하고 둔탁하고 소박하지만
그들은 흙의 자식처럼
흙의 어머니처럼 애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흙 속에서 생을 향유하고
흙 속에 죽음을 심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힘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흙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는 방식입니다
전쟁마저도 익숙해 있는 탓인지
풍재(風災) 짙은 어머냐고 보고 있는 것처럼
군대가 오면 도망가고
군대가 가 버리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지에 찰싹 붙은 흙집으로 돌아갑니다

농사꾼들의 온 신경은
흙 정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자(母子)의 귀한 혈연을
흙 생활에서 유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사모하듯
자식이 귀여움을 받는 것처럼
이 풍요로운 대지와 선량한 농사꾼을 생각하면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이 생각됩니다

지나정권이 넘어져도
군벌이나 은행이 파산해도
흙과 같은 농사꾼들은
흙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지요
저는 그래서
자연에서마저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생각한 나머지
여러 가지 어머니의 세계를
이와 같은 전쟁터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산 교훈을
성공하여 개선하는 날에
당신에게의
전승의 선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급쌀(配給米)

슬픈 운명에 새파랗게 질린
굶주린 큰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푸른 다 헤어진 누더기 옷의 줄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불쌍한 피난민
수 없는 실업군

따뜻한 집보다도
즐거운 직장보다도
지금은 오직 기아의 귀신이 되어
오늘의 술 안의 알맹이가 생명의 모든 것

새파랗게 젊은 여자의 얼굴
그것도 표정이 없는 굶음의 애원
굶주린 입의 노파 얼굴
그것도 표정이 없는 굶음의 침묵
청년이나 소년은
오히려 굶음의 힘으로 무엇을 말한다
새파랗게 질린 큰 뱀과 같은 줄은
망태기를 손에 손을
군표를 손에 손에
배급 쌀의 순서를 다룬다

우리 군표로 쌀을 얻는다
불행한 양민들
그러나 주는 자의 사랑의 마음을
쌀의 가치 이상으로 감사한다
그 양심마저 굶음의 표정이 어둡기 쉽다
다만 욕심 많게 쌀을 쫓는다
이 쌀이야말로
전 일본의 농민의 땀과 피의 결정
그것이 동양건설의 씨앗으로서
굶주린 지나의 생명 속에 뿌러지며
그 고귀한 가치를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에 흘린 쌀의
한 알 한 알을
아깝다는 듯이 줍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쌀알보다도 고귀한 마음의 진주인 것이다
-배급 주는 사람은 강하게 끄덕이고 있다

[작자 불임] 저는 이번 가을에 간도성·목단강성 일대를 여행을 하고 대륙건설의 실상을 보고 크게 감격하여, 이 집(集)의 시고(詩稿)를 다소 풍부하게 할 자신이 강해졌습니다. 또 11월 중순에는 황군위문과 재류동포 방문을 위하여 “협동예술좌” 일동과 함께 상해·남경방면으로 여행할 기회에 혜택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 현지에서의 실감을 노래하는 시작(詩作)을 계속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철학(戰爭哲學)

군인들은 그것을 모르며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그 가치에 살고 있다
여기에 아름다운 하얀 손의
두 사람의 전쟁철학자가 있다
승려(僧侶)형의 한 사람은 죄악을 설파하고
영웅형의 한 사람은 만세를 부른다
한 사람은 인류의 어둠에 한탄하고
한 사람은 역사의 빛을 그린다

그들은 노블한 상아탑의 진지(陣地)에서
철학의 “작은 칼 갈기”에 여념이 없다
그것은 전쟁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은 칸트에 주어진 비판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라
그들의 무기는 아름답다
고전적으로 꾸며져서
예술적으로 녹슨 펜인 것이다.

이러한 명예있는 펜이
전쟁의 신으로부터 주어졌을까
평화의 신으로부터 받은 것일까
누구도 그것을 아는 자는 없을 것이다.

낭비 없는 낭비가 이야기되며
논쟁을 위한 논쟁이 용감하게
그리고 높은 관념의 건축이 지어져 간다
그것이 현실의 하나의 유탄(流彈)으로서
그들이 모를 만큼 철학적인 것이다.

총이 전쟁의 도구라는 것은

그들도 그 경멸하는 상식으로 알고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쥐는 방법조차 알고는 있지 않다
그리하여 단순한 전쟁의 개념이
철학적인 천만(千萬)가지 말의 서책을 만든다
실제로 쏘아진 총알이
앞으로 날을 것인지 뒤로 달릴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은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들의 철학의 권 밖이라고 되뇌고 있다

공상적인 평화주의의 윤리성이
적병의 상처에 적십자의 붕대를 감아 주고 있다
한 사람의 간호부의 마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념적인 전쟁의 찬미론이
한 개의 소총알보다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은
전쟁철학을 모르며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생각할 신경의 틈마저 없는 것이다
철학인 오아시스의 흐름이
한 방울의 수통의 물만큼 가치가 없다
철학이라는 진주 구슬은
참새를 쏘는 공기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쟁터의 용사들은
생사의 저쪽에
다만 목숨을 바치고 있다
싸움에 산다!
싸움에 죽는다!
위대한 전쟁을 직접 생활하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말없는 철학자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전쟁의 철학을 생각한다
군인들에게
그렇게 바보스러운 틈이 있으면
한대 피우는 그리운 담배연기의 동그라미를 피우며

유유히 흘러가는 흰 구름으로 보낼 것이다
참호 언저리의 꽃을 사랑하며
종달새의 노래를 즐길 것이다.

친애하는 용사들은
그런 전쟁철학은 모른다
달밤의 성채(城砦)처럼
아무 말 없이 지키며
새벽녘의 대포소리처럼
은은하게 발언을 한다
거기에 산 철학이 있다
군인들은 그 가치에 살고 있는 것이다!

슬픔을 넘어서(悲しみを越えて)

경성역의 플랫폼 흠에는 사람의 물결—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내지인(内地人)³⁰⁾도 조선인도
무수한 입장기의 열을 이루고
붉은 은하와 같이 조용히 물결치고 있다

북방으로부터의 군용열차가
명예와 슬픔을 싣고……

무언(無言)의 명령과
백의의 부상병이 돌아온다

기적(汽笛)도 역시
엄숙한 주의(弔意)에 목소리가 젖어오고
피스톤도 기계소리를 내지 않고
사람들은 삼가며 말을 나누지 않고
슬픔을 넘어서
미끄러져오는 기차에
감사의 눈길을 일제히 보낸다

30) 일본인.

송구스러움에 고개가 숙여지지만
양손을 들게 하는 깃발의 숲은 높고
무언의 그리고 백의의 개선(凱旋)을 맞이한다
오오 만감(萬感)에 가슴이 미어지지만
불타는 마음은 슬픔을 넘어서
성스러운 눈물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그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싸우고
호국의 꽃으로 산화해 간
수많은 영령의 납골단지여
후방의 국민들 누구나 모두가
그 육친(肉親)의 생각이 들어 묵도(默禱)한다
그 고귀한 공훈에
눈물을 보이지 않고 신에게 맹세하는 외줄기 그것!

오오 그리고 또한
적의 총화(銃火)에 눈이 멀어
얼굴에 봉대를 한 젊은 병사여
목발로 걸음을 옮기는 백의의 용사여
그 고귀한 의안(義眼)은
모든 밝음을 마음으로 보고
그 고귀한 의족(義足)은
모든 슬픔을 넘어서
애국으로의 길을 조용히 나아간다!

국경에서(國境にて)

오전 0시!
시계가 어는 듯한 현실의 침묵
세계가 타는 듯한 신화의 정렬
무엇인가 비장한 것이 꺼지며
무엇인가 장려(壯麗)한 것이 나타나서……
창조의 신들이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옥로(玉露)에 빛나는 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차창에 흔들리는 낡은 램프를 꼭 노려본다
지상의 시상(詩想)에 영감의 불이 달린다

이 순간에
이 지대를
나와 달리는 국제열차는
두만강의 철교를 날고 있다
뜨거워진 레일에서 시각을 자르듯
뒤에는 가을 깊은 고향의 밤
앞은 꿈 많은 대륙의 새벽

지난날의 쓰라린 추억은
밤의 흐름과 함께 두만강이 실어 가 버리고
이 양 기슭의 강가에는
가련한 방랑의 자태도
열린 대륙의 처녀지뿐이며
젊은 우리의 척사(拓土)를 부르고 있다

좁은 메마른 자갈밭의
천재(天災)가 계속되어 흉작을 호소하고 있던 노인도
홀륭한 고추씨를 자랑하고 있던 남방의 여인도
봉선화와 파리의 종자 주머니를 갖고 놀고 있던 소녀도
저 대륙의 검은 땅에 씨를 뿌리는 꿈을 즐기는 듯
달리는 요람에 맡기면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다

친애하는 이민들의
선량하게 잠든 얼굴에 행복한 꿈이 깃들도록
그들의 지난날의 슬픔을
나 혼자서 노래하며 잊어버리자
그리하여 그들의 내일의 노래를
새로운 세계에 보내도록 가슴을 태우고 있다

꼭 바라보는 램프의 불꽃은
내 노래의 빛과 함께 타 올라가서
선구자의 의기로 달리는 국제열차여
우리의 인생을 낙토로 이끌어라
아직 보지 못한 대륙의 신부여
그대의 아름답게 웃는 얼굴 앞에서
국경의 밤안개를 닦아내고 우리를 맞이하라! (두만강에서)

바람의 말(風の言葉)

보는 것
듣는 것
나는 이국적인 진귀함을 상상했다
그러나 대륙의 가을바람은
남방의 하얀 불을 거칠게 때리고
낡은 센티멘털의 껍질을 까뒤집어
검게 빛나는 먼지의 연막(烟幕)으로
도회지의 눈과 귀와 코를 막아버린다.

나는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고
다음에는 곧장 빨갱게 부끄러워졌다
그리하여 도회지의 손수건으로 홍진(紅塵)을 털지 않고
입을 벌려서 가슴 가득히 들이키기로 했다
그것은 대륙의 강한 호흡
그리하여 자연의 힘찬 악보인 것이다

나는 흙의 눈으로 새로운 흙의 영혼을 보며
흙을 빨아들인 가슴으로 대지를 노래하자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은 진귀한 이국의 정경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건설보(建設譜)인 것이다

도문에서 목단강까지
우리의 열차는 대륙을 간다
역마다의 헌병이 총검과 함께 눈을 번득이며
객실마다 무장한 경승(警乘)이 일하고 있다
그들의 고귀한 고생 덕에
대륙의 평화스러운 건설이 꽃피우며
여객의 편안한 꿈이 맺고 있다
나는 감사의 차를 권하면서 경승(警乘)과 이야기 한다

차창 밖에는 관목의 언덕이
단풍에 붉게 물들어서 아름답게

끝없는 평야에는 벼와 좁쌀의 황금이 물결친다
연선(沿線)에 흩어져 있는 부락에는
거의가 조선이민이 많이 살며
풍요로운 논은 모두 그들의 공적이다

국토를 건설하는 '애로(愛路)'의 용사들
그 빛나는 곡괭이 아래에
검은 뺨처럼 무너지는 옥토(沃土)의 향기
씨만 뿌리면
한 줌의 비료도 없이 열매 맺는 대지의 은혜
나도 이대로 뛰어내려서 경작하며
검게 빛나는 흙을 볼 가득히 넣고 싶은 충동에 흘린다

닭이 우는 농가의 처녀 밑은
일장기와 오색 깃발이 번갈아 펄럭이고
햇빛이 비치는 초가지붕 위에는
붉은 고추가 빛나고 있다
밀레의 만종 평화스러운 그림처럼
이삭을 줍는 처녀들이 허리를 펴며
정다운 손을 흔들며 여객을 위로한다
나는 뛰어내려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이 동만(東滿)의 넓은 천지에
지금은 제2세 제3세가 생을 쌓으며
즐거운 생을 영위하고 있으나
군벌시대의 그들의 비애는 심하여
그것은 악마의 꿈이었다고 한다
사변 직전까지도
악덕한 지주나 채귀(債鬼)에
여편네나 딸까지 뺏기며
해마다 두더지처럼
갈며 쫓기며
갈고서는 또 쫓겨나고
풍요로운 대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망스러운 방랑의 운명이었다

지금은 새로운 왕도의 세계가
검은 흉조(凶鳥)와 같은 비적(匪賊)의 떼들도
황군의 위력으로 자취를 끊고
태양과 대지에 혜택받아서
태평을 구가하면서
내일의 황금지대를 갈고 있다

선구의 형제여
전선의 용사여
차창에서 흔드는 내 손에 대륙의 바람이 울릴 것이다
마음으로부터의 축복의 말을 가을바람이여 들어라!

고언(苦言)

사랑하는 도문의 시민들이여
전체의 8할도 넘는 조선의 동료들이여
자네들은 도문의 주인
그리고 대륙에의 안내자인 것이다

그러나 국제거리의 슬픈 성격이
자네들의 어떤 것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
대륙에 오는 사람들을 접대한다
그럴듯한 간판을 앞세운 화려한 여러분들이여
당신들 한 사람의 불친절이나 부주의가
얼마만큼 만주의 인상을 나쁘게 하며
얼마만큼 여러분을 경멸시키는가를
여러분은 인간의 이름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신축한 훌륭한 저택에는
부정(不貞)한 곰보 도움이는 안 맞을 듯
멀리서 온 손님 얼굴에 침을 뱉는 듯
그러한 문지기는 필요하지 않을 듯
허나 국제거리의 불행한 습성이
또는 그 잘난 듯한 간판이
당신네들의 심정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

법망을 뚫고 나온 밀수의 '전과자'여
불쌍한 간판이라도 말하는 '주인님'이여
자기 처지를 모르는 여관의 심부름꾼이여
함부로 들먹거리며
이유 없이 호통 치는 '높은 분'이여
공짜 입장권이라도 트집을 잡고
극단 등의 여행을 방해하는 거지근성이여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는 나쁨이
얼마만큼 도문의 명예를 더럽히는지 생각하라

갑자기 변한 세태 덕분에
일시에 부자 가된 '출세'를 한 당신네들이여
동포의 식자 입에서마저
“나도 조선인인데
조선인은 할 수 없다!”
아아! 뼈가 부서지는 듯한
이 한탄을 부끄럽게 생각하라

대륙의 광풍(狂風)처럼
아직 집시의 근성을 고치지 않는 여러분들이여
1전 동전을 금화처럼 뿜내려고 하는
불쌍한 지위를 모독하지 마라

아아! 불행한 도문의 까부는 여러분
동료인 내지인의 단순함을 배워라
동료인 만주인의 순진함을 배우라
허나 도문의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나그네의 쓴 소리를 달게 받으라!

가을은 좋다(秋は佳し)

봉선화의 열매 청명하게 튀어 오르는
조용한 가을의 양지쪽에
올 봄의 병아리 어느덧 은빛의 알을 낳고
부끄러운 듯이 당황하며 울어대는 사랑스러움이여

온통 맑은 푸른 빛 속에
드높은 목소리만을 던져놓고
한줄기 비상하는 화살은 백설조(百舌鳥)³¹⁾인가

붉은 고추를 말리는 명석 끝에
'홍부전'의 호리병박과 씨름을 하는 장난스러운 아이들이며
새하얀 목화솜 송이를
정성들여 나누는 사랑스러운 아내여
아름다운 과실 만족스럽게 보답 받아
가난한 우리 집의 뜰도 가을은 좋구나

여자도 아이도 낫을 들고 지계를 지고
들로 달려가자는 말의 울음소리 미덥고
수확의 계절 그 나날은 물결의 흐름이어라
어느 샌가 해가 저문 귀로(歸路)의 눈두렁에
한 톨의 신의 은혜도 조심스레
떨어진 이삭을 줍는 모습에 석성(夕星)³²⁾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진다

그러나 봄여름의 지나긴 영위(營爲)에
원수인 비의 날, 바람의 날, 가뭄의 날
온갖 자연의 폭위(暴威)와 싸워 지켜낸
피투성이의 달군돌(燒石)의 쓰라린 추억이여!
아아 역시 허리가 펴지는 가을은 좋구나

또한 엄숙히 채찍질을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여라—
젊은이들 목숨을 바쳐 지원하여 총을 들고
어떤 이는 지하의 암벽을 부수러 광산에 가고
어떤 이는 국토건설을 위해 장기 봉사(奉仕)하러 달려갔음을!
무척이나 일손이 모자란 마을사람들
조금은 이를 악물고 팔짱을 끼고
그저 묵묵히 슬픈 만큼 그저 묵묵히……
아아 역시 그곳의 풍요로운 가을은 더더욱 좋구나

31) 지빠귀. 때까치.

32)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 장경성. 태백성. 개밥바라기.

이윽고 단풍이 붉게 물드는 서원(書院)의 숲에
유림들의 기쁨 있는 가을축제의 밤에는
마을사람들 또한 정겨운 농악을 울리고
기쁨에 울려 퍼지는 풍년래(豐年來)의 노랫소리는
들과 산에 넘쳐나고 은하수까지 울려 퍼진다
아아, 신들이 좋아하시는 가을은 좋다

동방의 신들(東方の神々)

동방의 신들의 은혜의 옷을 몸에 두르고
그리운 선조들의 옛것을 살리듯이
엄숙한 비석의 끝에서 자손의 명예를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행복 바다의 행복 따스하게 음악을 탄다
신들의 색이 빛나는 아침구름을 나도 또한
지구의 처녀바위에 손을 올려 들이마실 것이다

산의 행복 들의 행복 꽃들의 미풍에 흔들리고
학은 높고 사슴은 춤을 추는 그림을 나도 또한
아시아의 마을에 씨를 뿌리고 노래할 것이다

아아 고향의 혼을 머금은 땅의 운치여
보리피리의 노래 뽕나무 열매의 달콤함은 잊을 수 없음을
서방의 마법에 취하는 방법 얼마나 가련한가

신들의 아름다운 향아리에 요염한 거미의 등지를 틀고
자신의 양심의 창을 기만하는 불행한 나그네여
슬픈 그림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동방의 별들을 보라

긴 생명의 뿌리 번창하여 날실의 꿈을 짜고
옛 전통의 샘에 끓이지 않는 담수(淡水)와 같이
몰래 그리워하는 향수야말로 운명의 따뜻함이다

태양의 불덩이 흩어져 천문(天文)의 보석을 펼칠 때
빛의 모음(母音)의 세례에 미소 짓고 얼굴빛 노란색이어라
지상 최초의 별들은 우리들이 선조이어라

면 인류의 지문을 화석의 비밀에서 보고 생각한다
이 한 톨의 떡갈나무도 수많은 자손 나무들을 한없이 전해주고
억만의 연륜을 석탄의 무늬를 이루는 날도 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아 지금의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 전투의 폭풍이 불더라도
동방의 백성들 피가 통하는 사랑에 서로 교감하고
커다란 신들의 마음에 따르면 사람들의 근심 없으라

보리 파종(麥播き)

파란 빗줄기의 색에 나무끼는 벼논의 들판이
황금의 바람에 물결치며 넉넉하게 익고 있었다
받아들인 짐의 그림자를 건넌 맑은 가을의 시냇물에
땀이 스며든 호미를 씻을 겨를이라도 있으면!
밤이나 수수 뿌리를 파서 일구고 갈아 뒤집고
구불구불한 흑토를 나란히 하면서 보리씨를 뿌린다

젊은 남자들 어찌면 전지로 용감히 정벌을 갔고
면 광산이나 철도공사에 많이 보낸 후
마을 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늙은이도 어린애도
생명의 향아리인 대지 속으로 몸을 던져 갔고

겨울을 좇아 달려가는 이른 햇발 아래에
몇 자리의 밭을 일구는지
몇 바구니나 되는 씨앗을 떨어트려 주는지
높게 갠 하늘에 번뜩이는 이 호미 날은
싸우는 뜰의 오로지 총 끝으로만 마음도 용기가 용솟음치며 올린다

서리 내린 아침(霜の朝)

씩은 오래된 짚으로 된 지붕 위에
하얀 서리가 차갑게 내린 아침
날이 새기 전부터 수확의 뜰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기 같은 숨을 내쉬고 구역질도 차가워지고—

떨어뜨려 가는 향기 새로운 벼 다발 위에
서리 맞은 늙은 메뚜기 한 마리

뿔 힘이 약해진 후의 갈고랑이 밭을 느리게 끌며
날아갈 기능을 잃어버린 얇은 깃을 부르르 떨며 싸운다

남쪽 나라인 이 고향에도 가을이 깊어지고
눈보라 치는 겨울을 부르는 전조인 서리가 내린 아침
저 산도 없는 북쪽 나라의 황량한 들판 끝에
지원한 충을 바치는 너의 귓볼에 바람 어찌 된 일인가

이 가을의 풍년을 섬(表)에 넣는 어제랑 오늘
이케오(池尾)의 밭도 세 배 나왔고 앞의 밭은 네 배가 나왔고
고마운 마을의 심부름꾼이다
집 걱정은 쓸데없는 짓이다 공적을 세워라!

봄과 가을의 누에 수확량도 좋고 난(蘭) 값도 좋고—
너를 생각하며 정성껏 모은 풀솜의 부스러기로
이 어머니의 손대중을 담은 방한 조끼
추운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 탄환도 깃털이여!

노랑에 붉은 빛의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떨어져 구른 왕밤
아침저녁 주워 모은 것을 한 되쯤 쌀(包) 테니까
나룻배도 얼어붙은 강기슭의 야영 불빛에서
밤(栗) 대포를 탕탕 튀기면서 전우와 맛을 보라

애국일(愛國日)

지상의 오늘을 싸우는 신호—
생명의 아침을 부르는 매(隼)의 사이렌
맑은 울림에 상쾌한 바람이 태어나고
별들의 꿈 그림자 같은 작은 안개가 걷혀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 속 거울까지 하늘색 파랗다

먼지 시원하게 가라앉은 넓은 교정에
급히 달려간 수천의 애국반원들
어린 대숲처럼 줄지어 선 깃발의 깃대의 물결

가을이 물드는 단풍 가지의 춤사위에 맞추어
황금색 '까마귀'의 깃발 살아나 펄럭인다

동쪽 하늘 산언덕에 떠오르는 ‘일장기’를 우러러보면
희망의 상징 내 손 안에 땀과 잡혀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혈의 피 땅과 몸에 불타오른다

지나간 한 달의 내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양심의 가시를 느끼지 않는 반원은 용사가 되어라
앞으로의 한 달을 싸움을 앞에 두고
새로운 계획을 더불어 맹세하는 대열 위에
이 아침 애국의 깃발 펄럭펄럭 손을 흔든다

선전의 날에(宣戰の日に)

우러러보면 신(神)들의 구슬 아름답게
이미 이천육백개의 별과 헤어졌노라
생명의 황금 실에 묶여
하늘의 끝에 거룩하게 빛났노라
대군(大君)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이니까!

지금 일 역의 하나의 손 위에 친근하게
또 영원한 하나의 구슬은 바쳐졌노라
뜨거운 피의 도가니로 단련되어
정의의 칼은 마음 차갑게 빛났노라
영묘(玲妙)한 구슬을 흐리게 하는 구름이 있으면!

아아 이천육백일 년 십이 월 팔 일!
역사의 어머니는 커다란 시련의 불을 낳았노라
현명하게도 받으시는 감격의 광영
우리들 제대로 조국과 평화의 적을 칠 것이다
대군의 강한 방패³³⁾ 되돌아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눈을 감으면
지평선 저쪽에 수평선 저 먼 곳에
싸우는 신들의 모습 감사의 눈물과 더불어 떠올랐노라

33) 천황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서 외적을 막아내는 자, 병사.

눈을 뜨면

전쟁 후의 거리에 들에 노래 불타고

내일의 전열(戰列)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강철을 떠내려 보냈다

아아 온나라가 힘을 다하는 선전(宣戰)의 날 지킴이는 굳건하게!

저 지나(支那)의 피를 들이마시고

인도(印度)의 뼈를 부수었던 자들이여

저 하와이의 진주(眞珠)를 뺏고

필리핀의 처녀를 범하는 자여

지금 또 우리 신국(神國)을 깔보는 바보의 꿈을 꾸는가

너희들 미영(米英)인의 제국주의를 묻는 심판의 새벽에

은은(殷殷)한 태평양의 포성은 마지막 말을 했노라!

아아 성전의 기풍(旗風) 불꽃을 튀기면서 정벌하는 곳

아시아 십 억의 잠자는 사자(獅子) 또 일어서려고 한다!

하늘은 갈라질 것이다 바다는 삼킬 것이다 이 노래는

태평양의 물결 마침내 아름다운 동양의 거울로 날이 깰 때까지

인류를 구원하는 신들의 아들은 죽어서도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년송(新年頌)

유구한 이천 육백 이 년! 무궁함을 봉축하는 원단(元旦)의 한 때. 일 억 갓난아기의 모든 것이 살아있음과 더불어 지성지충(至誠至忠)의 호흡을 하나로 해서 오로지 외경하고 성수만세(聖壽萬歲)의 수사(壽詞)를 바치고 바친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이 있어, 일 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다고 한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평범한 근하신년의 말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일 년의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참으로 오랜 말로써, 이것은 참으로 새로운 신년이 되기를 원한다. 일 년의 그것뿐만 아니라 실로 세기(世紀)의 원단이 되기를 원한다.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 되살아나고,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이다. 아아 숙연한 마음 가슴으로 느껴진다.

대동아 성전(聖戰)의 연두(年頭)에서 이 위대한 원단의 날 한 사람의 한 가정의 편안한 신년의 즐거움에 취해서는 안 되고, 일 억 국가의 엄격한 운명의 아침을 기도해야 한다. 더욱이 아시아 십 억의 동종생명(同種生靈)의 희망을 축하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축하해야 하는가. 아아 맑게 갠 하늘에 대답이 있고 영원히 기념해야 할 이십 일 전의 저 세계의 진감(震撼)! 저 붉은 피의 감격! 저 강철의 긴장! 소화 16년 12월 8일³⁴⁾을 새로이 생각하라.

그러나 깊은 맛이 있는 말이 될까. 일 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다고. 우주성신(宇宙星辰), 역사인사(歷史人事), 모두 그 최초의 좋은 조짐, 반드시 최후의 좋은 조짐이 될 것을 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선언한 날의 미명(未明), 황천(荒天)을 뚫는 은은한 태평양의 포성이여. 무적 바다 독수리의 하와이 원정. 모든 항구 모든 섬의 과감한 전격(電擊). 이미 미영(米英) 극동 함대를 전멸시키고 무훈(武勳) 혁혁하다. 공전의 서전(緒戰)의 대첩, 누군가 쾌재를 삼창(三唱)하지 않으랴. 태평양의 고래 떼도 필시 만세의 물보라를 뿜어 올렸기에 우리 최후의 승리를 믿지 않으랴.

되돌아보면 우리들 동양인은 앵글로 색슨의 굴욕과 학대를 참았던 것이 오래고, 그 착취와 약탈의 제압에 신음한 일 또한 길었다. 뿌린 죄업의 열매는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또한 오랜 사실을 하나하나 세는 데 허둥지둥 서두르지 말고 새로운 결의를 외칠 뿐. 이미 정의의 칼집에서 뻗은 칼은 칼집을 떠났다. 이 성스런 최후의 심판 앞에 어떠한 귀신인들 잘 울지 않으랴. 전선의 경(卿)들 나쁜 적들을 잘 물리쳐야 하며, 우리들 또한 후방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기에.

지금 신세기의 신화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깃발을 높이 올렸노라. 이 세계 평화로의 노래 불타오르고, 인류는 바로 이 두 개의 바름(正)과 사악함(邪)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일대 결전을 하려고 한다. 바로 장관(壯觀)이다. 우리들 지금 그 전사(戰士)인 시대에 삶을 누린다면 이 영광 어찌 자랑하지 않으랴. 구주웅방(歐洲雄邦)의 독일 이태리 동맹은 엄격히 지키고 동아시아의 태국 인도 또한 우리들과 손을 잡았다. 싸우는 자, 지키는 자 그 최대한 사력을 다할 뿐.

그러나 싸움에 능히 이기는 자, 또한? 자신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한다. 적에게 이기는 자 또한 자신의 마음속의 벌레를 이겨야 한다. 절대로 소아(小我)의 불만이나 마찰은 이번 기회에 공공연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일 억이 한 마음이라는 그 진의(眞意)의 단결에 투철하고자 하는 구나. 싸움은 지금이야말로 한창이다. 그러나 장기전의 각오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시련의 폭풍이 분다 하더라도 결코 뒤돌아보는 일 없다.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마지막 승리를 우리들의 머리 위에.

산의 신화(山の神話)

사계절의 구름에 색칠이 되는 산이 있는 곳
천고(千古)의 빛을 쇠고 나무들은 부르고 있던
산사(山寺)의 종소리도 하늘의 벽에 삼켜지고
사람 사는 마을의 닭소리도 멀리 끊어져서 들리지 않는다
밀림지대에 사는 산 속 사람들은
원시의 불과 도끼만으로 강하게 살아왔다

34) 1941년 12월 8일. 이 날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봉우리의 높이에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지은
골짜기의 깊이에 호랑이처럼 굴을 뚫다
강철의 도끼를 바람소리 내는 사나이들은
꽃노래를 부르며 큰 나무를 땅에 넘어뜨리고 갔다
불신처럼 아궁이를 때는 여인들은
참나무나 졸참나무의 통나무를 엇처럼 꺾어 접어서 던져 놓는다

솟을 굽는 평화스러운 푸른 연기는
낮도 밤도 산정기에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다
곰 손바닥처럼 새까맣게 일하며
세상사람들을 위하여 불씨를 바치며
산새처럼 화목한 생활을 즐겼다

아름다운 5월의 햇볕이 산밭에 쬐며
감자 꽃이 남색으로 피어 향기내면
소녀들은 옥수수의 수염에 붉은 장난감을 엮었다
여름은 삼실(麻絲)로 시원한 신령의 띠를 손으로 짜고
겨울에는 모피 베개로 신농(神農)의 꿈을 꾸었다
받드는 산의 신령이나 조상의 제사를 위해
돌 향아리 속에는 산포도주가 언제나 푸르렀다

우는 아이를 속이는 겁주는 말에
늑대 같은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다
다리가 긴 문어가 뒷 바위로부터 내려와서
배에 태워서 바다로 가는 이야기에는 숨을 죽였다
-아아! 산의 요람은 고마운 것인가!

젊은이는 수지(樹脂)의 정열로 이야기하며
아가씨들은 꽃잎의 미소로 속삭였다
사슴을 부르는 신호를 숲 그늘에서 노래하면
골짜기에 메아리쳐서 메아리끼리 서로 불렀다
산의 신화를 증손에게 이야기 전하는 백 살의 할아버지
그 머리카락처럼 하얀 치아로 호두를 까고 있었다

고향의 구름(故郷の雲)

어떤 고을의 가을 언덕에 와서
장난스러운 마음 아래에 꿰어올라
다람쥐 같은 마을 아이들과 견주며
구름이 흔들리는 방울의 감나무 위에서 장난을 쳤다
그리하여 미끄러운 씨를 몇 개나 삼켰다

꽃 아지랑이 봄 구름의 끝은 들국화의 남색에 어려서 방울지며
파랗게 빛나는 여름 구름의 술은 지하 깊이 스며들었다—
갓 빼낸 싱싱한 무를 껍질째로
배(梨) 소리를 내며 먹는 아이들과 섞여
부드러운 머리카락 색의 흙을 한 입 베어 물어 보고 싶었다

내 몸 부모처럼 늙어 그리워지는
칠현단(七賢壇)의 묘당(廟堂)의 마루기둥에
단청(丹青)의 구름을 받드는 유덕(遺德)의 향기도 그윽하게
어린 목소리로 당시(唐詩)를 읊은 여운이 가슴에 와 닿아
이끼 낀 비문을 곡을 부쳐 읽었다.

팔성산(八聖山)의 단풍 나부키며 우는 가을바람 속을 오르며
치켜 든 독수리의 배를 보이며 등을 보이며 날아가는 꼭대기에서
지비천(知非川)이 가늘게 빛나는 넓은 평야를 내려다보고
노랗고 파랗고 붉고 하얀 구름이 화사한 듯자리를 펴고
벼도 야채도 고추도 솜도 내 세상을 구가하고 있었다

이름도 대지 않고 비단도 입지 않고 홀연히 찾아 온
이 부실한 향당(鄉黨)을 육친처럼 위로 해주었다
낮선 노인으로부터 족장(族長)이라고 불리어 당황했다
정신없이 말하는 도회지 말투의 내 입 곁에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손을 흔들어 죄송했다

아아! 15년 전 옛날 소년다운 여러 꿈들이여
푸른 잔디에 대굴대굴 고민하며 공상하던 날들이여
아름다운 구름과 함께 날라 다닌다는 파랑새에 동경하여
풀뿌리를 쥐어뜯으면서 가출하는 음모를 짰던 추억이여
먼 산들의 저쪽에도 그 나라를 보았는데……

아아! 나그네 길 하늘의 구름과 원수처럼 싸웠던 이 사나이
지금 또 이 언덕에 누워서 고향하늘을 우러러 볼 것인가
거꾸로 내 던진 나의 곡예(曲藝)의 발아래에
불쌍하게도 헛 돌아간 지구의(地球儀)여—
사타구니 사이에 뜬 가벼운 구름을 보고 한탄은 얼핏 바람을 들이켰다

별레가 우글거리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불효한 죄의 풀을 뜯고 있으니
모래사장의 패총(貝塚)에 바닷물 소리가 살며시 오듯이
산밭의 수숫대에 이슬방울이 미끄러지며 떨어지듯
사람의 자식의 눈물이 똑하며 불을 타내려갔다
젓빛의 구름사이에서 당신은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밤을 굶는 아이들의 나이를 세어보면서
헤어진 긴 세월을 손꼽는 어린 시절의 친구들은
내 자랑과 뉘어 침을 바닥까지 아는지 모르는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돌아가기 싫어도 돌아가라
옛빛의 황소도 장기도 빌려주마 하고 친하게 말을 한다

사석(捨石)

동양의 운명을 사랑하는 의지
백만의 청춘을 대륙에 구가(謳歌)하며
귀한 공양(供養)의 불을 태우는 이 때!

나의 뜨거운 열혈(熱血)은
차가운 구슬로 굳게 응결되어
한 개의 싸우는 바둑알이 되었다

풍운이 어지러워진 바둑판에서는
이제야 생사완급의 비상 국면
나는 한 점을 지키는 말없는 작은 돌

싸움이 끝나 이길 때까지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또 움직일 수 없다
오직 지킬 뿐, 죽음으로서 끝날 뿐

아군의 돌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기가 죽을 장소였다면
구슬처럼 부서져서 사석(捨石)이 되어 주자

곧이어 불행과 죄악의 눈이 감겨져
아세아의 하늘에 아름다운 밤이 새면
우리의 사석(捨石)도 은하의 성좌에서 빛나리라

해신(海神)

무한한 평화의 면적
창고(蒼古)의 어머니인 천사 미역을 감고
십역의 아들인 생명 깊은 곳
북극성의 유성시대(流星時代)도 어제 저녁의 꿈이기에
남십자성의 그림자와 더불어 조용히 적셨다
우리 해신의 거울은 태평양이다

영원한 평화의 음악
송고한 부악(富嶽)의 해변에 철썩철썩
영묘(靈妙)한 금강의 큰 바위에 희뵈히
부옥(富沃)한 지나·인도 대륙의 강안(江岸)에
아시아의 노래 흘러오는 몇 천의 하계(河系)에 속삭이는
우리 해신의 피리는 태평양이다

그러나 우리네 거울은 너무나도 평화에 아름답고
또한 우리네 피리는 너무나도 평화를 사랑했다
전통의 빛 적선(賊船)의 괴이한 연기에 흐려지려고 하는 것도
천연의 가락 악령의 규환(叫喚)에 삼켜지려는 것도
우리 동양의 성운(聖運) 미영(米英)의 엄니에 부서지려는 것도
해신의 천심(千尋)의 은인(隱忍)은 더욱더 바닥을 지키는가

마침내 해신의 격노 기적을 부르는 곳
거울은 소용돌이치는 뱃길에 무수한 군기(軍旗)를 깔고
피리는 해일(海溢)의 군가를 울리며 중천(中天)을 제압한다
갈매기도 날개를 펴고 원정의 바다 독수리로 화신(化身)하고
남양(南洋)의 고래도 쾌재의 물보라를 뿜어 올리고
히말라야의 코끼리도 만세의 긴 코를 흔들지 않을까

아아 몇 세기 악마가 등지를 떠나게 했던 여러 섬과 항구들에
우리 해신의 깃발은 일장의 빛을 내 뿔었네

처녀도(處女島)

너 가여운 낡은 이름이여
싱가포르라고 하는 불락(不落)의 큰 코 지금 어디에
너 썩은 세기(世紀)의 만가(輓歌)는 영원히
장염(瘴炎)의 비풍(悲風)³⁵⁾과 함께 지상으로부터 사라졌노라

너 가여운 매소부(賣笑婦)의 이름이여
참으로 음의(姪猥)한 변명이 그리도 많았더냐
사항(獅港)이란 허수아비의 맹수는 백일하(百日下)에
바탕 없는 모래위의 금성(金城)과 함께 너구리의 가죽을 여지없이 벗겼다
홍콩(星港)이라는 유리알의 요성(妖星)은 물거품처럼
얇은 접시의 탕지(湯池)와 함께 만나지도 못한 채 날아가 버렸다

가여운 망령(亡靈)의 흑점(黑點)이여
가여운 인류의 오점(污點)이여
너의 이름의 장별(葬別)은 너의 행복이고
너의 이름의 신생(新生)은 너의 향수였다
그것은 너의 생명의 부활이며
또 너의 회생(回生)의 첫 울음(産聲)이기에

가여운 너의 유리알 한 알이 전락(轉落)했으며
늙은 매소부(賣笑婦)의 영국제 목걸이는
무수한 유리알을 세계지도로부터 잃어버려야 한다
한 잎 떨어져 천하의 가을을 아는 것처럼……

네 어머니의 낡은 이름은 이미 젊어져
대동아 해에 떠 있는 물결은 태양의 아침을 맞았노라
아아, 사랑스러운 싱가포르의 처녀섬이여
너도 역시 아름다운 아시아의 딸이 되었구나
시집가는 날의 꿈이야말로 동양평화의 꽃이 되어라

35) 쓸쓸하고 슬프게 부는 바람.

너의 운명이 이와 같이 찬란하게 되살아나는 날
우리들 또한 낡은 이름은 부르지 않고
우리들 이미 옛 죄는 묻지 않을 것이다

너의 무너지는 성벽 작은 돌과 같이 사라질 때
너의 부모인 아시아의 천지에는
십 억의 보조개가 환희의 파문을 그리게 된다
십 억의 만세가 청춘의 혈조(血潮)를 용솟음치게 한다

아아 사랑스러운 싱가포르의 처녀섬이여
상록수 잎 그늘에 정열의 꿈을 잇는 밤에는
동양평화의 동경(憧憬)의 노래를 키워라

눈물 아름다워라(涙うるはし)

너의 죄악의 문명(文明)을 모르던 날
우리들은 꽃 피는 들의 비둘기같이
눈물이라는 이름의 맛도 가치도 몰랐다

너희들의 문명을 또 죄악임을 모르던 날
우리들은 실제로 마약의 요연(妖煙)에 독이 드는 것처럼
오로지 서양을 쫓는 취희(醉喜)의 눈물도 있었다

너희들이 구적(仇敵)임을 알고도 별할 힘이 부족한 날
우리들은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뼈와 살을 깎아내듯이
동양설욕(東洋雪辱)을 비원(悲願)하는 인고의 눈물도 있었다

너희들이 결국 죄업을 개오(改悟)하지 않는 최후의 날
우리들 정의의 쇠망치는 청천벽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아아 미영(米英)을 향한 선전(宣戰)의 감격적인 눈물도 있었다

누가 능히 울지 않았으랴 저 엄숙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날
빛나는 바람을 뽑는 것 눈에 물방울 맺혀서 모두
백만의 수족(手足)을 전렬(戰列)로 몰아넣지 않았다

하와이를 부수던 날 홍콩을 차지한 날
우리들의 자랑이던 자신감은 지금과 같이

강대국의 기쁨에 눈물지으며 눈을 크게 떴다

적도(赤道) 바로 아래 남쪽의 싱가포르에 육박하던 날
원망과 바람을 함께 하는 가슴의 솟구침
원주민들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눈물 빛났고

말라리아의 장열(瘴熱)과 싸우는 고난의 행군하는 날
정글의 맹수와 노니는 정은 크고
적장(敵將)의 적묘(敵墓)에 꽃을 바치는 무사도(武士道)의 눈물도 있었다

부키테마³⁶⁾의 최고지를 점령하던 기원절(紀元節)날
맹그로브³⁷⁾의 진흙과 겁화(劫火)의 연진(煙塵)을 씻어내는 것처럼
검은 스콜의 감격의 눈물은 흘렀다

너희 악령(惡靈)의 영화(榮華)를 징벌하는 최후의 날
탐람(貪婪)하던 동양침략의 마성(魔城)에 드높게
우리들 승리의 깃발은 드디어 휘날렸다

너희 존 불³⁸⁾ 양키의 몰락 전조의 날
다행히 한 조각의 반성이 남아있다면
거국적으로 평화를 비는 현명함이다

아아 백년의 원망(怨望)이 사라지고 싱가포르는 함락되던 날
우리들 환희의 눈물은 세기의 아침에 아름다워
거리도 울고, 마을도 울고, 일 역의 사람들은 운다!

아아 대동아의 천지에 위대한 희망이 타오르는 날
해방을 이룬 인류의 향수에 젖은 눈물은 아름다워
대륙도 울고, 대양도 울고, 십억의 사람들은 운다.

휘파람 불면(口笛吹けば)

긴긴 밤 창을 열면
젯빛의 외로운 눈사람 그림자도 없고

36) 싱가포르에 있는 고지 이름.

37) mangrove. 열대나 아열대 갯벌이나 하구에서 자라는 나무.

38) John Bull, Yankee 각각 영국인과 미국인을 지칭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져 간 겨울 손님이여
여울물 소리는 누구의 휘파람인가

목장의 병아리 장수 성문 근처에 오면
무리지은 아이들과 놀고 나도 손뼉 치고
노란 부리의 언어를 휘파람으로 흉내 내면
가벼운 내 어깨에서 종다리는 날아갔다

무심코 차보는 길가의 작은 돌이여
손으로 다시 주워 만지작거리는 재미는 구슬이 미치지 못한다
팔을 돌려 하늘의 저편에 던지면
큰 바다 가운데에 물결치는 하얀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보라에 울고 있는 백양나무 가지에
화창한 봄의 빛은 향유(香油)를 흘렸다
안은 채 어루만져 본 나의 가슴과 손바닥은 넘쳐흐르고
수지(樹脂) 향기롭게 파란 잎(靑葉)의 꿈은 떠올랐다

사랑하는 사람과 일요일 들판에서 휘파람을 불면
아득히 지평선 위에
새하얀 구름의 폭신평신향 오선지의 악보가 춤추고
신들이 노래하는 마음 봄의 아이를 받아 주실까나

아아 전쟁의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자연의 은혜는 나에게 또 조화(造化)의 휘파람을 주고
여린 유채꽃을 따며 걷는 소녀의 노래바구니를 들여다보니
들미나리의 향기는 푸르고, 복숭아꽃은 빨갭게 미소 지었다

이른 봄 1(早春 1)

흙색의 기름 진하게 빛을 더하고
침묵한 대지의 은혜 따듯해지는 날
정원을 가르느 노랑고 하얀 화초의 싹이여
아름다운 한여름의 꿈 다발(夢束)을
저 태양의 신랑에게 쏘지 않고 화살을 뽑을까

이 그리운 할아버지의 뿌리에 싹트는 화초여
너의 혼을 닮은 어린 아이들의
무심(無心)한 작은 손의 석필(石筆)의 그림은
정녕 군대의 사람인가
정녕 아시아의 지도인가

사람이라면 우리들과 너를 위해
빛나는 명예로운 화관(花冠)을 엮지 않겠는가
지도(地圖)라면 역사와 미래를 위해
너의 평화스런 초록색으로 바다를 물들이지 않겠는가
너의 아름다운 꽃 색으로 육지를 칠하지 않겠는가

이른 봄 2(早春 2)

싸움은 계속해서 이기며 나아가
푸른 평화의 탐을 계속 쌓고
봄은 대지의 품을 녹아 흘러 내린다

어린 봄의 머리를 쳐들은 넓은 들판에
어린 동자와 소녀 맨발로 춤추고
즐거운 놀이도 군가와 방공(防空)!

종다리의 노래를 쫓아서
능숙하게 만든 자기 비행기를 날리고
꿈을 실은 종이 소리개를 내놓는다
옷을 빠는 강가 갯버들의 싹
눈(雪)이 탄 재의 구슬이 되는가
가지 벗긴 작은 피리를 부는 아이들

전쟁의 봄은 평화의 탐에 꽃을 장식하고
전쟁하는 이 나라의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젊은 아낙들에게(少婦たちに)

봄이라도 되면 새의 노래
그리운 추억도 되살아나는 너희들
지금은 이미 젊은 아내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의 어머니

아궁이의 불이 가늘어짐을 한탄하지 않고
아침저녁의 찬이 보잘것없음을 불평하지 않고
새로운 옷과 분첩을 탐내지 않고
낡은 고무신을 손수 만든다
아아 전쟁하는 세상에서 가족을 지키는 너희들

봄이라도 되면 말(馬)의 울음에
침을 가진 너희들의 약한 손
낮에 또 들에 나가 가래질을 한다
자장가를 부르는 너희들의 선하게 웃는 얼굴
남편이 가버리면 또 슬퍼하지 않고 헤어짐을 노래한다
아아 전쟁의 이 나라에 꽃은 넘쳐난다

개미(蟻)

물은 올라간다
키다란 검은 나무 벽에 물은 올라간다
빛은 내려간다
폭포 같은 태양의 빛은 내려간다

말라버린 가지가지에 생명의 젖이 넘친다
굶주린 우리들처럼……
눈보라에 시달린 싹과 꽃봉오리를 봄은 구제한다
학대받은 우리들처럼……

철(鐵)이 용솨음친다
태평양의 도가니에 역사의 철이 용솨음친다
불이 타오른다
아시아로부터 죄악을 회신(灰燼)하는 불이 타오른다

봄이 오면 때가 오면
털과 같은 발을 하고 개미는 기어간다
그대 보지 않는가 작은 생명의 개미조차도
지구를 돌아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을!

북변의 봄(北邊の春)

밝게 빛나는 눈(眼)을 빼앗는 밝은 정적(靜寂)의 물가에서
눈이 내려앉은 별거벗은 나무들은 빙해(氷海)의 기둥을 나란히 늘어놓고
은빛의 꽃이 빛나는 가지는 차가운 겨울 하늘의 푸름을 찌른다
여기 북위 50도의 총검에 숨결(息)은 서리를 뿜어내고

구름이 오면 땅을 누르고, 바람이 불면 옆에서 한창 울음을 운다
스키로 달리는 귀신같은 솜씨는 백호(白虎)의 꼬리를 잡는다
천연의 '가루비누'로 비벼 빠는 모포에서 즐면
나무로 만든 야영막사(營舍)의 꿈은 환하게 불빛을 그리워한다

항상 여름인 남양(南洋)의 땀을 생각하는 눈에는 겨울의 벽이 가로막고
화려한 적도(赤道)의 공로를 듣는 솜씨는 감탄스럽지만
묵묵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킴이의 길을 힘주어 내디디는
여기 북변(北邊)의 찬 보루의 돌은 미동(微動)도 하지 않는다

겨울은 쫓지 않지만 봄은 이윽고 동쪽으로부터—
들에 떠도는 이리도 원시림 그늘에서 처를 그리워하면
가여운 목동은 신부의 재산을 꿈꾸는가
양지에 살고 있는 열두 마리의 새끼 돼지를 안고 소란을 떠난다

반들반들 생명의 피가 통하는 자작나무 즐기 끝에
사 역의 커다란 몸집이 눈을 뜨는 모습처럼
달팽이가 꿈틀거리며 기어오르는 몸 위에
태양의 사랑과 별들의 물방울 넉넉히 존재하라

연습 사이의 째에 밭을 가는(耕) 둔전(屯田)의 흙 까맣게 가슴을 열고
저 멀리 야마토(大和)³⁹⁾의 풍성한 들판에 번쩍이는 여동생의 가래와 한 줄기
동아시아의 기원을 한 알 한 알 뿌리는 신들의 손이여
이 낙원의 땅에 뿌리내릴 한 줄기 화초도 사랑스럽게 지킨다

송화강변(松花江邊)

후방(後方) 사람들의 눈
모두 남쪽의 기쁨에 눈이 빛날 때

39) 일본의 판 이름.

나는 어린 소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봄 늦은 북변(北邊)의 노고에 절절한 마음을 쓴다

눈으로 막힌 대륙과 함께 말없이
얼음을 녹여 아침저녁의 밥을 짓는 극한의 땅
이제 슬슬 무거운 방한구를 벗을까
따뜻한 위로담배의 불은 끊어지지 않을까

저 태평양의 장쾌한 승보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당신들의 후위(後衛)의 무적을 생각한다
풍운(風雲)이 오가는 흑룡강(黑龍江)의 갑작스런 범람을 지켜 낸
평화의 돌과 말뚝-묵묵히 뿔내지 않는 용사들

송화강의 얼음도 녹아 어선의 뱃노래 평화롭고
길 없는 지구의 경도(經度)에 올해의 제비는 아직 오지 않는가
공습의 두려움 없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이 드는
경성의 거리에서 나는 감사의 손을 든다

남으로 간다(南へ往く)

그 전날 밤도
어머니는 서둘러서
아들의 메리야스를 기웠다

그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는 정성껏 밥을 짓고
아들이 젓가락 들었다 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나라를 위해 간다면……
더위에 약해지지 말고 일 하거라”
어머니는 몇 번이고 말했다

“급료도 듬뿍 받을 수 있으니
여동생의 옷장과 옷은 살 수 있겠지요”
아들은 오빠답게 빙긋이 웃었다

장자(長者)의 집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도시의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도 쓸쓸해 하지 않고
또 그것보다도 기뻐하며 눈물 지었다

아들의 길 떠나는 모습 늠름하게
남방에 가는 건설의 젊은이는
그저 손바닥은 단단하고 이마는 크게 빛났다

“너희들도 함께 가고 싶지만……
그쪽의 물소에게 지지 말고 집에서 일해”
아들은 소의 콧등을 두드리며 날아갔다

남으로 북으로(南に北に)

한 마을의 친한 친구들
동지 떠나가는 계절의 새의 날개를 나누고
너는 아직 겨울 셔츠를 옷장에 넣고
우리들은 사계를 입는 여름의 존재

“이 추세라면 늙은 나도
담뱃대 물고 어슬렁거릴 수 없다
5단(段) 10단의 논밭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리를 펴고 웃는 얼굴은 빛이 나고
가는 것은 능위(稜威)⁴⁰⁾의 빛의 물가에
지키는 것은 후방 집의 돌기둥
젊은 사람의 길은 저 멀리 희망의 하늘
전쟁 후의 짙 부스러기를 주울지라도—

내가 가면 북쪽 대륙에 콩과 보리
손가락에도 가래에도 이삭을 피우게 하리라
내가 가면 남쪽 나라의 공영(共榮)의 벗
잠자는 광맥(鑛脈)을 개척하고 과실을 넉넉하게 하리라

40) 천황의 위세.

단오의 절구(端午の節句)⁴¹⁾

하자쿠라(葉櫻)⁴²⁾의 초록 바람이 초여름의 손으로
밝은 아침의 창을 탁탁 두드리면
잉어드림(鯉幟)의 야구루마(矢車)⁴³⁾가 덜컹덜컹 돌며 날개가 온다
이봐 이봐, 모모타로(桃太郎)⁴⁴⁾의 한 연대(一聯隊)가 솟아 오지 않는가

자보(子寶)의 집들 그 처마 끝에
경사스런 창포가 천대(千代)의 뿌리를 내린다면
각각 도깨비도 에비스⁴⁵⁾도 상관하지 않고
천 만 리 안개 밖으로 도망가지 않겠는가

초가지붕의 조청 빛 물결로 나풀나풀
유황으로 표면을 그슬린 기와지붕의 은빛 물결로 반짝반짝
저기 저기 살아있는 비늘이 튀어 오르고 있는
아름다운 5월의 잉어떼는
배불리 넓은 하늘의 폭포를 삼켜 눈빛이 푸르다

여보세요 진실한 개미에게 물어 보자
가볍게 기어오르는 잉어드림 장대는
무럭무럭 자란 어린 마디가 몇 개 있을까
곧 다가올 스물 하나 그날을 헤아리면서
형들의 출정 그 깃발과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한창 전쟁놀이에 몰두한 생명이 날개 치면
사이좋은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며 초원을 달린다
그리고 계절의 병아리 나무들의 꽃을 흩뿌리고
쾌청함의 전통을 두루마리 그림에서 노래하고 있다

무사인형의 기라성(綺羅星)이 빛나는 고풍(古風)의 장식대에
이치로(一郎)⁴⁶⁾가 손으로 만든 비행기를 올리고 득의양양해지면

41) 다섯 명절의 하나. 현재는 특히 3월 3일과 5월 5일을 일컬음.

42) 꽃이 지고 어린잎이 난 벚나무.

43) 잉어드림은 단오절에 올리는, 천 또는 종이로 만든 것. 좁고 긴 천의 한끝을 장대에 매달아 세운다. 야구루마는 축(軸)의 돌레에 화살 모양의 살을 방사선(放射線)으로 박은 것을 말함.

44) 복숭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개·원숭이·뽕을 거느리고 도깨비 섬으로 도깨비 사냥을 갔다고 함.

45) 칠복신(七福神)의 하나로, 상가(商街)의 수호신으로 오른손은 낚싯대, 왼손에 도미를 들고 있음.

지로(次郎)⁴⁷⁾는 장난감 탱크를 태우고 어때 라고 한다
아! 동심의 지혜는 역사의 마술을 쓰고(使) 있다

집안사람들이 모두 오늘의 일을 마치고
훈훈하게 서로 이야기 하는 저녁시간 등불 아래에
“군인들도 총 끝에 잉어드림을 매달겠지”
“창포의 약탕(藥湯)은 승무(勝武)의 탕이라고 하면 되겠군”
아! 아이들의 기지는 꾸밈없는 시인 같다.

새근새근 잠자는 오늘밤 아이의 꿈길은
잉어의 등에 타고 용궁으로 외출했다
그리고 잠이 깨었다고 생각한 채로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또 방대한 군함의 대장이 되어
아득히 태평양을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명예로운 별들(譽の星々)

이날 석간을 보고
나의 양손은 전율을 느꼈다
커다란 기쁨의 소리는 목에 막혀서
희미한 한숨이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아아 고마운 이 광영!

조선동포에게 징병제 실시!
눈앞의 신문지는 불에 타서 사라진다
우리 반도의 지도가 반짝반짝 떠올랐다
현해탄의 파도색도 없어져 버리고
일장기 그 충성의 피가 부글부글 끓어 오른다
새로운 역사의 태양은 떠올라 있었다

나는 성스러운 환상에 마음이 떨려와
삼가 두려워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이천사백만의 머리 위에

46) 일본 고유의 장남 이름.

47) 일본 고유의 차남 이름.

명예로운 별들이
대군(大君)으로부터 찬란하게 빛나며 내려오신다……
아아 몇 백 만의 방패의 증표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늠름한 어깨와 머리에 빛나고 있었다

우리 초년병의 별들이여 사관의 별들이여
그중에서 나는 학제(鶴濟)⁴⁸⁾의 얼굴을 또렷이 본다
저는 가네무라(金村) 상등병입니다!
발랄하게 거수의 예를 갖추는 아우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신문을 든 채로 전차에 뛰어 오른
국민학교 5학년의
건강한 아우의 손을 흔들면서
가네무라 상등병이라고 미래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기도(祈り, 징병감격 그 2)

황금색의 구름 위
하늘을 나는 신의 채찍
매의 날개를 뿌리친다
신령의 목소리는
울리며 맑았다

아아! 2천 4백만
깨어나지 않는 별들의 무리
대낮의 올바른 꿈에
지금 반짝이는 마음 두려워하며
커다란 신(神)만의 재주
내 다섯 손가락 안에
나타나고 있으며
쥐어졌으며
천황의 전쟁
새로운 모자는 용감하게
바치는 검(劍)은 존귀하다

48) 시인 김용제의 동생 이름으로 추측됨.

우리가 사랑하는
아우는 백만
자네들은 잘도 남자에
잘도 이 시대에
훌륭하기 짝이 없는 군기(軍旗) 아래
사는 보람이 있으리
죽어서 불멸의 영예가 있도다
망치를 쥐는 돌과 쇠손
팽이를 쥐는 흙과 풀손
그물을 쥐는 바다와 생선손
젊은 목숨을 바쳐서
오래도록 국방의 숲이 돼라
은명(恩命)의 총은 주어졌다

우리들이 손 안의 손
백만이 여기에 맺어질 때
그리운 전우의
전우의 말은 영화(榮華)로 갈 것이다
당신네들 모두 일어나고자 한다
물불 속에 가려고 한다
커다란 빛 속으로—
조국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깃발의 기원은 하나가 되어
자네들 장행(壯行)을 보내려고 한다
자네들의 개선(凱旋)을 맞이하고자 한다

학생에게(學生に, 징병감격 그 3)

진리의 머리에 뿜내는
그 학모(學帽)들
청춘의 탄알에 찢어지는
그 제복들
이 감격의 순간부터
엄숙한 군모(軍帽) 생각이다

긴장한 군복 생각이다

이슬 풀을 박차는 아침들판에
바람에 타는 이마의 땀마저
피를 흘리는 부상병의 모습이
눈에 어리어 떠오른다

사격표적을 남김없이
적이 총 가늠쇠에 보이면
필사의 노림은 백발백중
어제까지의 교련 모두가
흉내 내는 것 같아서 부끄럼을 느꼈다

6년간의 신문뉴스에
우리가 이기면 당연하다는 기분이 들며
전사자가 많다고 전해지면
존귀한 희생이라고 입으로는 말해도
대수(代數)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번 5월 9일의 석간부터
그것은 우리 학생들의
산 역사서가 되었노라
하나하나의 검은 활자 뒤에
젊게 흐르는 피를 새빨강게 태웠노라
그기에 조국의 운명과
내 몸의 생사를 직접 볼 때부터
출정해서 싸우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자애(自愛)

5척 8촌의 큰 남자가
13관 500까지 말랐다
약한 몸이 더 피곤하면
뼈에 사무쳐 있던 파란 불꽃이
바람처럼 빈혈의 간조(干潮)를 불렀다

쌓인 일 위에 펜이 굴러가면

눈 속에 희미하게 불이 명멸(明滅)하고
무지개의 부서진 기류(氣流)가 고리(輪)를 어지럽게 했다
이런 혼명(昏冥)의 강가에서만
자신의 몸이 흑사당한다는 죄를 깨달았다

허리를 띄우고 지그시 이를 깨물었다
조용히 뇌를 흔들며 눈을 떠서
종이가 하얗다는 것을 겨우 알자
괴로운 심호흡을 어깨로 했다
그러자 내 마음과 오른손은
금세 또 잉크병의 바다에 흡수되어 갔다

그렇지만 일에 대한 애정과 책임이 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쉽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시간과 생활이 발을 동여맨다

싸우는 세상의 싸우는 몸이 되면
죽음의 관념도 화장(火葬)도 무섭지 않았다
그렇지만 죽을 만큼의 값어치가 아직은 없었다
싸움으로 상처 입었다고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는다면 전사(戰死)처럼 아름답게……
아프다면 야전병원의 젊은이들처럼
자랑일까 상처를 입고 싶었다

그렇지만 비행기는 날지 않으면 안 되고
나사가 풀리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아주 잠시 동안 마음 편하게
고향 언덕의 햇볕과 이슬을 맞으면서
푸르른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고 싶다

한여름의 시(眞夏の詩)

촌 아가씨들의 오지향아리가
부드러운 봄빛에 빛나고 있었다
우물의 물맛도
우물결의 발 색깔도